



2020년 가을 계간 69호

평신도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 공모 내용

- 1) 공모기간: 8월 31일(월) ~ 9월 29일(화)
- 2) 응모대상: 관심 있는 모든 신자
- 3) 공모형식: 체험수기 / 원고지 20-30매 내외
- 4) 공모 주제
 - 가족 간의 선교 사례
 - 친인척 간의 선교 사례
 - 선교를 통해 대부모, 대자녀 관계를 맺은 사례
- 5) 접수방법: 한국평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 또는 우편 접수
- 6) 선정발표: 10월 중 한국평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시상 내역

- 바오로사도상 (대상) 1점 100만원
- 믿음상 (최우수상) 2점 각 70만원
- 소망상 (우수상) 3점 각 50만원
- 사랑상 (장려상) 5점 각 20만원
- (상금은 국내·외 선정자 모두 제세공과금 4.4%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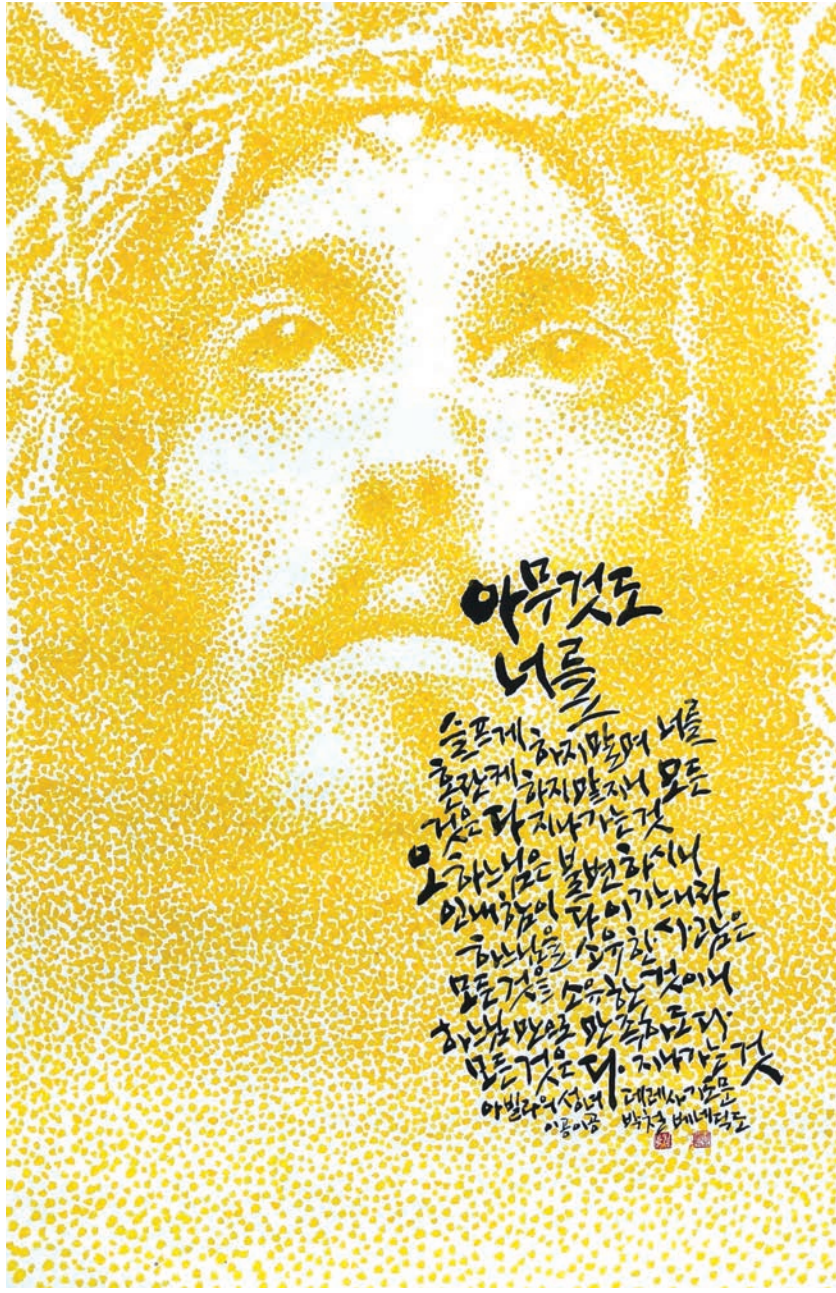
■ 유의사항

- 1)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2) 작품 수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3) 수상작의 저작권은 한국평협에 귀속되며, 추후 응용 및 활용될 수 있음
 - 4) 기존에 출품되었거나 표절작으로 밝혀지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수상을 취소함
- * 문의사항은 02-777-2013 또는 한국평협 이메일(clak0723@naver.com)로 접수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한국평협 홈페이지 참조 www.clak.or.kr

2020년 가을

평신도



- 인 사 인사말
- 소 식 행사 일정
- 특 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 만 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수도회 탐방
- 나 눔 김수환 추기경 유물 소개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나의 신앙 선조
- 이 콘 성모님의 이콘
- 순 례 성지순례
- 이야기 요셉의원
주보성인과 나
- 배 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동 정 교구평협 · 회원단체



2020년 가을
계간 69호

평신도

CONTENTS

인사

02 인사말/ 조성풍 신부

소식

04 9월-11월 행사 일정 / 염지유

특집

07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 권영빈

12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후기

만남

25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31 수도회 탐방 / 서희정

나눔

35 김수환 추기경 유물 소개 2 / 송란희

38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3 / 김주완

42 나의 신앙 선조 / 김학순

이콘

44 성모님의 이콘 I / 장금선

순례

47 성지순례 : 스페인 이야기들 / 김원창

이야기

52 요셉의원 / 최태교

57 후보성인과 나 / 구자임

배움

59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한진섭

62 평신도 양서 / 김선동

동정

64 교구평협·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위원	김병호 토마스 아퀴나스,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서희정 마리아, 송란희 가밀라, 최태교 안드레아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 박철(베네딕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 쁨을 표현하였습니다. 한 점이 쌓여 형상 을 만들고 작은 기도가 모여 주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인사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담당사제



작년 가을호를 통하여 정겨운 인사를 나눈 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억에 남을 날을 꼽아보라고 하신다면, 2월 26일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날은 올해의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교구에서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4월 23일부터 공동체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 19로 이전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도 매년 진행하던 회원 연수를 몇 차례 연기하다가, 최소한의 인원(회장단, 위원장, 단체장)만 모여 축소된 일정으로 7월 18일 성 앵베르 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성 앵베르 센터는 올해 서울대교구가 문을 연 피정 센터입니다. 교우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양성에 관심을 가지셨던

앵베르 주교님을 기억하는 집이라서 더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은 당시 한문으로 된 기도문을 많은 교우들이 바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교우들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이 절망적인 상황(박해 상황)에서, 착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방과 샤스탕, 두 분 신부님을 지수하도록 하시고, 함께 순교하셨습니다. 이처럼 교우들과 교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창세 15,1)라는 주제 아래, 오전에 이루어진 ‘교회와 사회 속의 평신도 사도직’ 강의를 통하여 평신도와 여러 단체들이 세상 안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갈 정체성과 사명, 역할에 대하여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비대면 시대의 사이버 선교’와 ‘평협 유튜브 소개’의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선교 모델을 만들어 내어 다른 지역 교회에도 전파하자는 제안이 참으로 인상적

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 새로운 방법’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평신도들에 의한 ‘신앙 이어주기 운동’이 펼쳐질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교회의 미래 세대인 현재 20~40대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돌아간 뒤에도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저런 준비에 마음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교회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며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마음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50~70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요즈음 손자녀들에 대한 돌봄에 함께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50~70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자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을뿐더러 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사도 바오로의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합니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여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대에게도 깃들여 있다고 확신합니다.”(2티모 1,5)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울러 2021년 ‘김대건과 최양업, 두 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양 낚새 나는 착한 목자들과 그 목자들을 사랑하는 양들의 공동체’가 더욱 확고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박해 상황에서 목자와 양들이 서로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완숙 골롬바, 최인길 마티아, 주문모 야고보 신부’, 이 세 분의 복자들의 삶에서, 그리고 복자 박상근 마티아와 칼레 강 신부, 두 분의 삶에서 엿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음 한 몸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상황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며,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함께하려고 노력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랑의 하느님께서 부족한 나와, 우리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체험한 사랑의 하느님을 다른 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느님 사랑의 전달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안에서 가톨릭 신앙인으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는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체험하고, 간직하고, 이어주고, 전하는 ‘신앙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복음화의 길을 충실히 걸어갑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창세 15,1) 



교구평협·회원단체 9월~11월 행사 일정

교구평협 행사 일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하반기 연수회

- 일시: 9월 11일(금) ~ 12일(토)
- 장소: 마산교구 가톨릭교육관
- 문의: 02-757-7851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회원 하루피정

- 일시: 10월 17일(토)
- 장소: 삼성산성지 피정의집
- 문의: 02-777-2013

▶ 평신도사도직연구소 열린세미나

- 주제: 공동합의성
-권위주의와 다수결주의를 넘어서
- 일시: 11월 7일(토) 2시~6시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77-2013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 일시: 9월 12일(토)
- 장소: 솔피성지
- 문의: 042-252-7856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감영 순교자비 제막식

- 일시: 9월 26일(토) 오후 6시
- 장소: 원동성당-학성동 신흥공업사-감영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 주제: “우리는 그날처럼 살고 있습니까?”
(대동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나눔과 연대)
- 일시: 9월 26일(토)
- 장소: 국립 5.18민주묘지 일대(15km)
- 문의: 062-236-3004

회원단체 행사 일정

한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피정

- 일시: 11월 13일(금) ~ 14일(토)
- 장소: 한국레지오마리아기념관
- 문의: 02-755-7060

한국가톨릭농민회협의회

▶ 가을걷이 감사미사 & 도농한마당잔치

- 일시: 11월 1일(일)
- 장소: 서울 명동대성당 일대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전시회- 하느님, 예술로써 찬미 받으소서

- 일시: 10월 14일(수) ~ 19일(월)
- 장소: 서울 명동 갤러리1898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전국 회장단 피정 및 정기총회

- 일시: 11월 20일(금) ~ 21일(토)
- 장소: 한남동 곧벤뚜알 피정의 집
- 문의: 02-451-0333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 제20회 가톨릭포럼

- 주제: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한국사회와 종교
- 일시: 9월 2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주최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I.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권영빈 가브리엘(홍보소통위원장)

II.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후기

특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권영빈 가브리엘(홍보소통위원장)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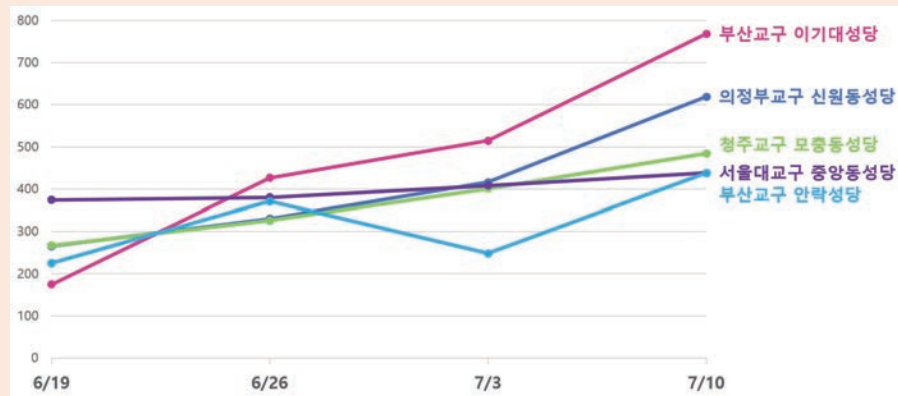
2020년도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 다행히도 미사가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에 의해 교회 입장 시 발열체크 및 명단 확인을 해야 하고 성당 내에서도 간격을 두고 앉아 미사를 봉헌해야 하며 소그룹이나 단체 등의 행사도 쉽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에 대한 불타는 갈증을 메워주지 못하고 있기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한국평협)와 인터넷 굿뉴스가 공동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응원 이벤트로 이번 모바일 복음 쓰기를 진행하였다. 굿뉴스는 앱을 개발하여 두 차례 모바일 복음 쓰기를 시행한 바가 있으나 한국평협과 공동행사로 확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평협도 각 교구 평협의 협력 아래 많은 본당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읽고 쓰고 새기며 흠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응원의 취지로 마련되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따라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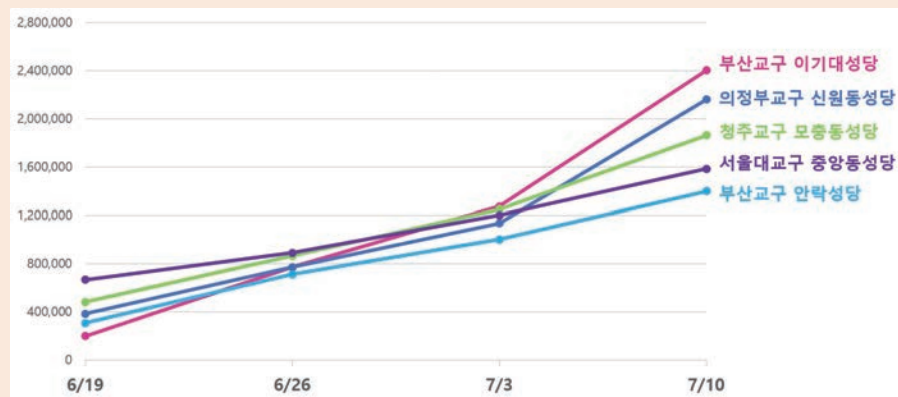
〈표1〉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공고문

이벤트 기간	2020년 6월 1일 ~ 7월 10일(40일간)
참여 방법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앱 「가톨릭」 설치 후 참여
시상(본당)	전체 1등 200만원, 2등 150만원, 3등 100만원 교구별 1등 각 50만원 특별상 각 50만원 (해외, 도서벽지 3개 본당)

대회를 진행하면서 한국평협은 각 교구 평협/평단협 회장단과 가상회의 도구인 줌(zoom)을 통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 등을 토론하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대화 중에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교구별 평협/평단협이 신자 수 대비 참여율이 높고 열심히 노력하는 본당을 하나씩 추천받아 상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본당 대항 이벤트이기에 개인상은 없었으나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께서 묵주 20개를 회사하시어 상위 20위까지 개인상을 시상(20등 동점자가 나와 21명 시상)하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시상식 및 상금지급은 코로나 19로 인해 각 교구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 <그림1> 주별 참여 인원의 변화



▲ <그림 2> 주별 취득 점수의 변화

2. 이벤트의 참여도 분석

이번 모바일 복음 쓰기는 평신도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40일간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마감일인 7월 10일 정오를 기준으로 참여한 본당의 수가 1,181개, 참여인원이 14,753명이었다. 이벤트 결과 영예의 수상 본당과 특별상은 <표2>와 <표3>에 제시되어 있다. 특별상은 핸디캡을 가지고도 열심히 참여한 본당 공동체에 시상하였다.

<표2>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수상 본당

등위	본당	참여인원(명)	총점(점)
1위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768	2,401,559
2위	의정부교구 신원동성당	619	2,158,505
3위	청주교구 모충동성당	484	1,861,308

<표3>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특별상

본당	참여인원(명)
인천교구 백령도성당	46
대구대교구 율곡성당	56
마산교구 생림선교성당	20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본당 중에서 상위 5등까지의 본당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 통계를 기준으로 마지막 4주간의 참여인원과 취득한 총점을 분석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1>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의 참여인원의 변화를 보면 이번에 우승한 부산 이기대성당은 6월 19일까지 top10에 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3주 동안 참여 인원이 무섭게 상승하였으며 결국은 참여도를 바탕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상위권을 달리던 본당들의 참여도 증가가 완만하여 순위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 인원의 상승 기울기가 등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울기가 완만하거나 들쭉날쭉한 경우 순위가 내려감을 볼 수 있고 결국은 본당의 공동체적 노력이 우승의 원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주간 취득 점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가 많은 것은 점수를 얻은 확률은 높일 수 있으나 쓴 점수에 비례하여 점수가 산

정되므로 반드시 우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6월 26일 참여인원은 3등이나 총점은 5등을 기록한 안락성당의 예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참여인원의 수가 많을수록 총점도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므로 참여자의 확대와 함께 합심하여 쓰기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상 수상자의 분포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상의 상위 5등까지는 군중교구, 부산교구, 수원교구, 청주교구, 대구대교구의 신자들이 차지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상위 5등까지의 본당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단체의 힘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표4>는 교구별 100명 이상 참여한 본당의 수효를 나타내고 있다. 10개의 교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주교구의 화북성당은 199명이 참여하여 높은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산교구와 춘천교구는 숫자가 약간 못 미쳐 표



▲ 대상 -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표4〉교구별 100명 이상 참여 본당의 수

본당수	교구명
4	서울대교구, 부산교구
3	인천교구
2	광주대교구, 대전교구, 청주교구
1	대구대교구, 수원교구, 의정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표5〉교구별 1위 본당

교구	본당	참여인원(명)	총점(점)
서울대교구	중앙동	438	1,583,158
춘천교구	포천	90	315,211
대전교구	논산부창동	254	938,556
인천교구	신공항	171	593,675
수원교구	초지동	114	389,515
원주교구	봉산동	68	211,708
의정부교구	원당	96	311,844
대구대교구	중리	280	1,055,204
부산교구	안락	438	1,398,199
청주교구	금왕	131	521,353
마산교구	삼천포	96	399,803
안동교구	용상동	11	35,290
광주대교구	본촌동	212	695,644
전주교구	삼천동	135	494,731
제주교구	화북	199	668,425
군중교구	철벽	51	154,320

에는 들지 못하였으나 역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그리고 군중교구의 많은 본당들도 참여도가 높았는데 개인상을 차지한 것을 보면 신심이 깊은 신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방의 의무에 성실히 임하면서 신앙도 잘 가꾸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미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표5〉와 〈표6〉은 각각 교구별 1위 본당과 교구별 평협/평단협에서 추천한 본당이다.

〈표6〉교구별 평협/평단협 추천 본당

교구	본당	참여인원(명)	총점(점)
서울대교구	양원	67	211,924
춘천교구	일동	64	253,822
대전교구	천안오룡동	253	932,240
인천교구	서창2동	113	362,072
수원교구	보라동	97	267,238
원주교구	배론	8	34,550
의정부교구	도래울	51	173,842
대구대교구	봉곡	72	242,996
부산교구	서동	114	453,637
청주교구	구룡	92	285,210
마산교구	칠원	80	323,183
안동교구	울진	8	22,884
광주대교구	진월동	151	477,373
전주교구	조촌동	21	90,622
제주교구	하귀	57	196,802
군중교구	오뚜기	24	64,882



▲ 서울대교구 1위 - 중앙동 성당

3. 맺음말

이번에 진행한 이벤트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각 본당의 공동체 의식 함양하고자 준비한 행사이다. 이번 이벤트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6월 예수성심성월을 맞이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 날 때에 장소 제약이 없이 복음을 쓰는 40일간의 이벤트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느끼고 묵상을 하는 유익한 기간이었다고 생각된다. 매일 성경 쓰기과 묵상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복음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더 나아가 본당의 구성원들이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살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현대적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근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마트하게 변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신앙에 목마른 신자들에게 주님이 비추신 하나의 새로운 빛줄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스마트한 행사가 많이 생겨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 행사에 대한 영상은 가톨릭 평신도-한국평협 앱을 깔고 본당 대항 매일 복음 쓰기 수상 본당 발표를 검색하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평협은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다수 발굴하여 유튜브를 통해 신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니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특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후기

〈편집자 주〉 이번 특집의 후반부에는 이번 이벤트에 참가한 본당들로부터 후기를 받아 신는다. 10편의 후기가 도착하였는데 각자 진솔한 모습으로 준비한 내용이 고 수상한 본당의 평신도가 대부분 작성한 내용으로 준비하는 자세와 모습을 귀 감으로 삼아 다음번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감 없이 모두 실었다. 원고를 작성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말씀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의 기록을 평신도 잡지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전체 1위'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 찬미 예수님

한국평협에서 주관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에서 저희 부산교구 이기대본당이 전국 1등을 하였습니다. 참여한 1,181개 본당 중 1등이라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 본당 신자 모두가 푹푹 뭉친 결과입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이 기간에 저희 이기대본당은 한상엽 프란치스코 보좌신부님과 함께 전국 최초로 유튜브를 통한 주일학교 교리공부를 시작했고, 지금도 매주 교리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은 본당 청소년분과 위원회 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보좌신부님을 중심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회, 자모회가 호응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 활동이 부진한 상황이니 모바일 복음 쓰기에 참

여하여 힘을 내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성주 프란치스코 주임신부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셨고 6월 예수성심성월을 맞이하여 청소년분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모바일 복음 쓰기 미션이었습니다.

복음 쓰기 시작 후 1주일 지났을 무렵 부산교구에서 5위, 전국 교구에서는 50위권 밖이었습니다. 이에 본당 청소년분과에서는 수시 회의를 통해 모바일 복음 쓰기 전 신자 참여 방법을 의논하였습니다. 이후 토요일, 주일미사 후 전 신자 동참을 적극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 노년층 교우분들 대부분이 앱 설치 방법을 몰라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분과, 청년회, 주일학교 교사, 자모회에서 조를 편성하여 미사 후 자리를 마련하여 앱 설치를 도와 휴대폰 모바일 복음 쓰기에 띄어쓰기 등 불편한 점들을 하나둘 성실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통했는지 6월 28일 이후에 부산교구에서는 2위, 전국 교구 중 4위로 올라섰습니다. 교중미사 중 주임신부님께서는 순위에 연연치 말고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본당에서는 본당 전 교우가 참여하는 모바일 복음 쓰기가 화젯거리가 되었으며, 참여 교우들이 500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당 평협을 중심으로 각 구역 소공동체와 꾸리아 등의 제 단체 카톡방에는 격려문과 응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으샤! 으샤! 이모티콘과 함께 전체 교구 순위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며 의정부 신원동본당과 1, 2위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교중미사 강론 중 주임신부님께서 부르신 노래는 신자들의 복음 쓰기 참여에 엄청난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위하여 ~ 위하여 ~ 우리의 복음 쓰기를 위하여
들어라 ~ 휴대폰을 들어라~~”

7월 8일, 신부님이 봉헌하신 새벽미사 중에 주임신부님 아버님께서 교통사고 후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시다가 그날 그 시간에 선종하시는 슬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장례미사(10일)를 봉헌할 때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다행히 하늘공원에서는 비가 푹 감사합니다.”

장지에서는 신부님의 글귀로 모두 복음 쓰기는 잠시 잊고 오로지 주임신부님 아버님만을 위한 기도를 바치며 본당 교우들의 일체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7월 13일, 순위 발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산교구 이기대본당이 생긴 지 18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진한 감동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총 가득 내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신자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산교구 이기대성당 평협 회장 조총래 안드레아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전체 2위’ 의정부교구 신원동성당

성당 앞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7월의 오후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교우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평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는 저희 본당에 기쁨과 일치와 희망을 준 큰 보람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저희 본당은 2014년 9월에 설립된 의정부교구 소속 신설 본당입니다. 그동안 성당 신축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낸 바 있고, 2020년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루카 15,6,9)’를 사목목표로 정하며,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자’고 힘차게 시작했지만, 코로나 19로 많은 것이 중단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가 끝날 무렵, 한 교우가 ‘모바일 복음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읽고 쓰고 새기며,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라는 취지에 본당 신부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교우들에게 소개하셨고, 사목위원들과 함께 직접 교우들의 회원 가입을 도와주면서 거의 전 신자가 가입, 매일 복음 말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 말씀을 쓰는 40일 동안, 저희 본당의 화제는 온통 복음 쓰기였습니다. 룰렛 점수에 희비가 갈리고, 날이 갈수록 복음 쓰기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 많은 어르신들은 회원 가입부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신부님께서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하여 열심히 쓰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만약 수상을 하게 되어 상금을 받게 되면, 받은 상금만큼을 보태어 의정부교구의 코로나 19 재난 긴급모금(FOJ)에 기부하겠다고 하시면서 가족상, 단체상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접하는 모바일 복음 쓰기 앱은 복음 말씀, 복음 나누기, 순위, 통계 등을 볼 수 있어서 좋았으며 또한 쉽표, 마음표, 마침표 등 특수문자 입력이 자동으로 나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리한 앱도 한몫을 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신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즐겁게 복음 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75세의 자매님에게 성경 쓰기 요령을 화면 순서대로 설명을 한 후 직접 입력해 보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먼저 룰렛으로 출석점수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물어보시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혼자서도 꾸준히 입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룰렛 점수가 10점 나오면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룰렛 점수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으나 계속 7, 8점이 나오니까 엉엉 울었던 어린이, 매일 빠지지 않고 쓰면 아이스크림을 쓴다는 엄마 말에 넘어가(?)

완전한 어린이, 매일 복음 쓰기를 하니 신앙심이 생긴다며 묵주기도를 하는 기특한 모습도 보였으며, 본당 등수가 올라갈수록 아이들끼리도 서로 격려하면서 감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 모두 깜짝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전국 2등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열심히 썼지만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나름 저희 본당의 사목목표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들의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을지라도 전 신자가 합심하여 복음 말씀을 쓰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고 하나가 되었으며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는 끝났지만, 저희 본당 교우들이 현재 ‘제3회 함께 복음 쓰기’를 자발적으로 하며 말씀에 맛 들이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평협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의료진 및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임신부님과 본당 교우분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교구 신원동성당 신자 일동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전체 3위’ 청주교구 모충동성당

† 사랑은 나눔의 실천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가진 바를 서로 나눔으로써,
기쁨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자’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자리한 작지만 아름다운 성당.

남들보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더 뜨거운 우리 모충동 본당의 신자들이 매주 함께 함송하는 본당의 ‘사명선언문’입니다.

한때 주일미사 참례자 수 850명을 상회하며 모든 면에서 교구 내 타 본당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관내 거주인구가 25% 정도 감소하면서 본당의 주일미사 참례자 수도 630여 명 내외

를 힘겹게 유지하던 것이 최근 본당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지난 2월 시작된 코로나 19 이후로는 더 침체된 분위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아지던 시점에 ‘본당 대항 복음 쓰기’ 소식을 접하고, 막연하게나마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평협 임원들과 교우들에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려고 해도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굿뉴스 가입을 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첫째 날 상황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 36명에 교구 2위, 교구 1위와의 격차는 30명이 조금 넘었는데, 순간 교구 1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구가 발동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려울 것이라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 날 선교부장님의 공방을 찾아가서 “이번주 내로 100명 가입하여 교구 1위 해 봅시다!” 했더니, “우리 250명 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때 생각으론) 좀 허황된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 분, 한 분께 가입을 권유하고 앱을 설치해 드리면서 생기는 어려움은 매 순간 함께 해주신 보좌신부님, 수준급 전산 실력을 보유한 수녀님과 ‘열혈선교팀’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와 가입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첫 주일을 지내고 보니 참여 인원은 200명이 넘었고, 교구 1위 전국 2위에 올라 본당 교우들조차 놀라며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긍지를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임신부님께서도 지원해 주시고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론 걱정과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이 일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본당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신반의하고 걱정하는 저를 오히려 다독여 주어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낮없는 상황의 연속 중에 보낸 40일을 돌이켜보면, 제일 먼저 동참해 주신 위령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든이 넘는 고령에 오류를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완주하신 신 아녜스 자매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신 주일학교 자모회, 교사회, 청년회,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기억 속에서 잊혀 있다가 소환되어 함께해 주신 수많은 쉬는 교우들, 비록 본인이 직접 쓰지는 못하여도 기꺼이 호응하고 함께해 주신 장애 교우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본당 공동체의 소중한 가족임을 일깨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복음 쓰기를 통해서 나타난 본당 교우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쓰고) 묵상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충동 성 바르나바성당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청주교구 모충동성당 평협 회장 진배희 클레멘스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각 교구 1위’ 서울대교구 중앙동성당

+ 찬미 예수님

2019년 11월 22일 처음 굿뉴스에서 매일 복음 쓰기 이벤트가 진행되었을 때, 중앙동성당이 몇 등인지, 매일 룰렛 출석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교우들 사이에 내가 몇 등인지 어떻게 하면 룰렛 점수가 10점이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써야 할 복음 말씀이 긴지 짧은지 궁금해지며 <매일 복음 쓰기>에 매일 매일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도 복음 쓰기에 대한 의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주시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많은 교우분이 복음 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복음을 쓰며 하느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복음 쓰기에 따라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정에서 모바일 복음 쓰기를 통해 매일 매일 하느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힘든 상황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복음 쓰기 여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족의 복음 쓰기 순위 등으로 관심과 경쟁심이 생기게 되었고, 아이들도 또래 친구들과 서로 서로 챙기며 함께 복음 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에서 복음 말씀을 나누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도 신앙심을 더욱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룰렛 점수나 등수에 연연했던 모습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 쓰기를 한다는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모바일 매일 복음 쓰기를 통해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공동체 모임이 지양되는 이 시기에 모바일 매일 복음 쓰기는 하느님의 말씀의 은총을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 함께하며 영적 성장을 해 소하고 신앙생활을 반추하고 영적 메마름을 촉촉이 채워주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신앙이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중앙동성당 청소년과장 김진섭 미카엘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각 교구 1위’ 군중교구 철벽성당

안녕하십니까? 군중교구 철벽성당 김세영 파비아노 신부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 만들어준 좋은 기회 덕에 본당의 높은 참가율과 더불어 교구 1등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소감을 나눕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나 가벼운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만나기 어렵고 모일 수 없기에 우연히 발견한 ‘코로나 19 극복 한국평협과 함께하는 본당 대항 복음 쓰기’가 침체되어 있는 본당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신앙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이에 본당 사목회를 비롯한 신자들에게 “한 번 같이 해보자~”라고 말했던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잘못된 안내를 하는 바람에 기존의 매일 성경 쓰기를 계속하게 되어 첫날 참석자 수는 저조했습니다. 그래도 둘째 날 실수를 바로잡고 한 명, 두 명 전날 밀린 복음을 포함하여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당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 처음엔 교구 1등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단지 본당 신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신앙적으로 분위기가 쇄신되고, 조금이나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첫마음으로 안내해주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며칠 새 조금 바뀌어버렸습니다. 본당 안에서 기왕 본당 대항 복음 쓰기를 하는 김에 교구 1등은 한 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혹시나 복음을 쓰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바랐던 첫 원의에서 벗어나 1등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신자들이 하루 하루 복음을 써가면서 1등에 대한 열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일 복음을 쓰다 보니(특히 하루의 시작을 복음 쓰기로 시작하셨던 분들은) 아침부터 힘이 나고 그날 하루가 너무나 좋다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뿌듯해졌습니다.

40일 동안 이루어진 복음 쓰기가 끝났지만, 누가 쓰라고 하지 않아도 그 여운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쓰기를 하고 있는 본당 신자들이 여전히 있음에 기쁩니다. 또한 교구 1등이라는 것보다 이 복음 쓰기를 통해 얻은 더 소중한 가치는 복음을 읽고 쓰며 묵상함으로써 얻는 힘과 본당 신자들의 일치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에 추후 받게 될 교구 1등 상금은 본당 신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육군 위국헌신 전우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 나라를 위해 고생하며 희생한 장병들의 명예와 예우가 증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말씀의 소중함과 본당 신자들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본당 내 모든 신자들이 신앙 안에 하나 되고, 더 나아가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 19를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려 함께 참여해준 철벽성당 모든 신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철벽성당 주임 김세영 파비아노 신부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특별상’ 서울대교구 양원성당

찬미 예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극복 응원 이벤트 한국평협과 함께하는 본당 대항 복음 쓰기’에서 신자 수 대비 높은 참여율로 서울대교구 양원 성당이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외친 말입니다.

‘신자 수 대비 높은 참여율’이라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양원성당은 서울대교구에 속해 있는 본당 중에 신자 수가 적은 본당 중 하나입니다. 교적 인원은 1,000여 명이지만,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수는 200명 정도이니, 참으로 아담한 본당이지요. 이런 저희가 성전 건축이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신부님은 성전 건축 모금 강론을 하러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다른 본당에서 모금 강론을 하시고, 흰색 종이박스 모금함을 들고 혼자 서 계실 우리 신부님,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께 조금의 위안과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상이 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양원성당의 복음 쓰기는 단순히 복음 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잡고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중단된 미사에 대한 위안이었고, 이렇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를 깨닫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지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모두가 함께한 양원성당 복음 쓰기 40일이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매일 매일 알람 올리듯, 복음 쓰기를 독려하시는 자매님도 있었고, 오타와 띄어쓰기의 요령을 설명해주시며 오늘도 힘내자 말씀해주는 자매님도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에 머느리까지 동원되어 함께 쓰셨다는 자매님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모바일 복음 쓰기로 늙은이가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지만, 차츰 적응해서 혼자 쓴 날은 본인 스스로도 즐겁고 대견스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룰렛 출석 점수가 10점이 나오면 하루가 즐겁다는 자매님도 계셨고, 양원성당 등수가 한 단계 점프한 날은 다 같이 으쌰으쌰~ 더 열심히 하자고 전투력이 상승하기도 했지요. 무엇보다도 고사리 손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해 준 우리 복사단 친구들,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를 주님께 보내드리고 늦게나마 말씀 안에서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다 표현하시는 자매님께서는 복음 쓰기가 따뜻한 위안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양원성당의 복음 쓰기는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위안이고, 성전 건축에 우리 모두가 벽돌 한 장을 올리는 기도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읽고 쓰고 새기며 흠어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모바일 복음 쓰기로 우리는 ‘함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함께’하는 의미를 새긴 것이지요. 그런 시간을 시작하게 해 주신 한국평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에게 응원과 위안이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의 어둠 속에서도, 가장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깨닫는 소중한 40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록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기록한 40일의 시간을 보냈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 양원성당 여성총구역 서기 박현수 소화데레사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특별상’ 부산교구 서동성당

찬미 예수님!

우선 우리 본당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예상하지도 못한 코로나 19로 인해 미사와 모든 모임이 중단되면서 갈 곳 잃은 양 떼와 같은 혼란에 빠져있었던 본당 공동체였습니다. 5월이 되면서 미사가 재개되었지만 예전에 반갑게 볼 수 있었던 본당 신자들의 모습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19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당 신부님께서 본당 차원에서라도 한국평협에서 주관하는 모바일 복음 쓰기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겨내고 본당 공동체가 조금 더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도록 해 보자고 말씀하셨고, 본당 신자들은 그 응답으로 복음 쓰기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음 쓰기를 다소 힘들어 하였지만 이내 본당 신자들은 점차 모바일 복음 쓰기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본당에서 만나게 되면 모바일 복음 쓰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두드려가면서 하루하루 하나하나 써나갈 때마다, 주님 말씀의 향기를 느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우리 모두 조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2코린 2,15)

우리 본당 공동체는 모바일 복음 쓰기를 통하여 좀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고 힘든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본당은 모바일 복음 쓰기를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19가 주는 고통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도 갈라놓지도 못할 것이며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5,3)

지금도 코로나 19가 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각계 각층에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상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어려움이 해결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복음 쓰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본당 신부님 이하 수녀님, 모든 신자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기회를 마련하신 한국평협 관계자분께도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 그리스도님께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

부산교구 서동성당 평협 회장 주해홍 율리아노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특별상’ 군종교구 오투기성당

오투기성당은 제8기계화보병사단의 장병들과 군인 가족들, 지역 내 위치한 6군단 및 1군지사 예하부대 중 일부 부대의 장병,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단 장병은 1만여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이지만 부대의 특성상 예하 부대가 양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등 다양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신자 수는 주일미사 참석인원을 기준으로 50~60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공소까지 포함하면 150명이 공식적(가톨릭 앱 복음 쓰기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김여명 토마스 아퀴나스 본당 주임 신부님은 작년 7월에 임관하여 첫 근무지로 우리 오투기성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임신부로서 처음 맞은 성탄 시기에 본당 신자들에게 ‘가톨릭 앱’의 존재와 ‘복음 쓰기’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셨고, 앱에서 제시한 선물 외에도 100일간의 복음 쓰기를 완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별도의 선물까지 약속하시면서 ‘모바일 복음 쓰기’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길들여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 쓰기를 하고 있던 중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성탄절 행사도 잘 마치고, 복음 쓰기도 하면서 신부님을 중심으로 오투기성당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걸음마를 댔 시점이라 그 상황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주말 동안 공소를 포함하여 10번에 가까운 미사를 혼자서 감당하시면서 신자들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희망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M세대 신부님’답게 모바일 복음 쓰기 외에도 구글 설문지를 기반으로 한 복음 퀴즈, 마음의 평화를 주는 성가가 담긴 유튜브 영상, 단체 대화방에서 매일 먼저 물어주시는 신자들의 건강과 안부 등을 통해 코로나 19가 가로막은 오프라인상의 만남을 온라인을 통해 극복하셨습니다. 결국

오투기성당은 성탄절 복음 쓰기에서 100일간 꾸준히 복음을 써온 몇몇 신자들을 비롯한 많은 형제, 자매들의 참여로 군중교구 소속 본당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19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며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속에서나마 미사가 재개되고 모두 반가운 마음을 나누고 있던 즈음, 신부님께서 핸드폰을 꺼내시며 “조금 지나긴 했는데 복음 쓰기 또 한번 해 볼까요? 이번에 본당 대항인데...”라는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에 같이 있던 모든 신자들이 “당연하죠.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라고 하며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 말씀처럼 이미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이미 앞서가고 있던 본당의 참가인원을 보면 “1등은 안 되겠네.”라는 생각부터 들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제안하신 당일 15명 남짓한 인원이 복음 쓰기를 시작했고, 용사들의 일과 이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진 환경과 신자들의 열정을 생각해 보면 ‘한번 해볼만 한데?’라는 용기가 생겼고 다양한 그룹별로 복음 쓰기 이벤트의 참여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은 스마트폰을 가진 자녀들까지 함께하며 20명까지 인원을 늘려 갔습니다. 용사들에게는 군중병 단체 대화방을 통해 사단 군중병이 전파하였고, 천주교 신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미사는 나오지 않고 있는 냉담자들에게도 복음 쓰기 이벤트를 알렸습니다. 한두 번 미사에 빠지다 보니, 아니면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성당에서까지 상급자들과 신자 대 신자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의 불편 때문에 발걸음을 성당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개신교만큼 적극적인 사목활동을 하지 않는 천주교의 특성이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성당을 찾는 신자들도 있는데, 스스로 찾아오기 전에 ‘타의에 의해 성당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을까?’라는 노파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코로나 19가 만든 ‘언택트’ 문화처럼 모바일을 통해서라도 하루 10분씩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스스로 돌아올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나의 마음을 포함해서 복음 쓰기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중성당이 부담스럽거나 입대 전부터 다니던 고향 본당이 가까워 민간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냉담 중이 아니라 주님을 꾸준히 만나고 있던 신자들은 부담 없이 복음 쓰기에 동참했지만, 20여 명의 냉담자 중에는 단 한 명만이 참가해 주었고 주일미사는 아니지만 월말 부대안전 기도회 때 아침미사에 나온 형제가 있어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시스템과 문화가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과 친숙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복음 쓰기의 경우 사소한 오타자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함에 마치 군대 행정업무 간 보고서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다가 블루스크린이 뜬 상황처럼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제는 “처음에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틀린 글자가 있어 넘어가지 않아 화도 나고 손가락에 쥐가 날 것처럼 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또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며 복음 쓰기 이벤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복음 쓰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본당별 점수만 보면 우리 본당은 교구에서 세 번째로 수상권에 들지 못했지만 신자 수 대비 참가율은 2등보다 월등히 앞선 것이 참작된 듯 평협 회장 추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열흘이나 늦게 시작했고 1등을 달리고 있던 본당과의 엄청난 격차가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본연의 의미에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참가해 준 오투기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평협에서 알아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 쓰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모두가 다른 공간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평협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중교구 오투기성당 사목회장 김정환 다니엘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특별상’ 인천교구 백령도성당

신부님께서 미사 후 공지사항 시간에 한국평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윤안순 비르지타 자매님께서 “나도 성경 쓰기를 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칠십이 넘은 지 한참이신데 문자는 보낼 줄 아시냐고 물었더니 문자는 보낼 줄 안다고 말씀하셔서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주고 회원가입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 쓰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 쓰기를 하면서 오타가 나서 수정을 해야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할 줄 몰라서 찢찢매다 밤 9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이시냐고 물었더니 복음 쓰기가 안 된다고 하시기에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하여 밤늦게까지 쓰면서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첫날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첫날과 같이 복음 쓰기가 잘 안된다고 하면서 밤에 찾아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써야겠다고 말씀하시며, (남편) 형제님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며 무슨 복음 쓰기를 하느냐고 핀잔을 한다고 하시며 저에게 끝까지 도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도 좋으니 아무 때나 함께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셋째 날부터 잘 써진다고 하시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비르지타 자매님께서 복음 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며 하루하루 써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제 혼자서 쓸 수 있다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본당에서 복음 쓰기에 계속 1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희들 또한 너무 기뻐합니다. 40일 복음 쓰기가 끝나고 윤안순 비르지타 자매님이 저희 본당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쓰기를 함께한 모든 분들이 만족하며 비르지타 자매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평협 본당 대항 복음 쓰기 수상발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 본당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윤안순 비르지타 자매님께서 20명밖에 안 준다는 개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을 느끼기에 앞서 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은 하느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이 예뻐나 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인천교구 백령도성당 사목회장 백현제 비오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 ‘특별상’ 마산교구 생림선교성당

찬미 예수님! 먼저 전국적인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꿈만 같습니다. 생림공소와 한림공소를 합하여 생림선교성당으로 승격된 지가 올해 딱 10년째입니다.

우리 본당은 노인 인구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등록된 신자는 308명이지만, 주일미사 참례 신자는 많으면 80~90명 정도입니다. 한 자매님의 권유로 1회 때부터 복음 쓰기를 한 사람이 6명인데, 상금은 상상도 못 하고 그냥 매일 복음을 쓴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2회 때는 상금이 없어도 11명이 열심히 썼습니다. 2회차가 끝날 즈음 갑자기 주변의 큰 성당들의 참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뭘 까?’ 하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19 이겨내기 본당 대항 복음 쓰기가 올라왔습니다. 신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지만, 주변에 복음을 함께 쓰자고 말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청년회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회가 만들어진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회원 수는 10명입니다. 그중 7명이 복음을 썼습니다. 아기들이 있어서, 직장 근무 때문에 등등 젊음의 개인적인 시간도 바빴을 텐데 열심히 적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는 “매일 복음 쓰기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문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친구도 있고, “복음을 쓰고 미사 참례하면 복음 말씀과 강론 말씀이 이해가 잘된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성당의 규모나 신자들의 숫자나 모든 면에서도 시상의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느님께서 참 공평하시다는 생각이 찡하게 듭니다. 복음을 쓰면서 룰렛이 사람을 웃게도 하고 찡그리게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답은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한다.’였습니다. 지금도 룰렛을 돌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ㅎㅎㅎ

지금도 13명이 복음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새기며 받은 이 상금은 정말 특별한 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하느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뜻으로 주신 이 특별한 상은 우리 공동체에서 작은 파티를 하면서 코로나 19도 이겨내고, 하느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하느님! 항상 감사하고, 쫓 사랑합니다. 생림선교성당 파이팅!

마산교구 생림선교성당 신자 손병임 루치아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김정일 티모테오/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

대구는 올 한 해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대적해 싸운 한국 가톨릭의 선봉대였다. 지난 2월부터 대구에서 확산된 코로나 19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대구에서는 2월 18일 신천지에 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코로나 19 확진자를 시작으로 2월 23일에 환자가 602명까지 폭증하며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그 속에서 대구 평신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 19 사태를 이겨냈고, 고난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김정일 대구평단협 회장님을 찾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김 티모테오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코로나 19에 도움을 주신 단체와 신자들의 이름과 후원액수까지 꼼꼼하게 적어 보내주셨다. 도움을 주고 귀한 말씀을 주신 김정일 티모테오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 대구대교구는 지난 2월 한국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미사도 중단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긴박했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2월 17~19일 전주에서 개최된 한국M.B.W.추진봉사회 연수에 참석하던 중에 대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9일에 아침을 먹다 주위 분들에게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견미사가 끝날 때쯤 대구에서 긴박한 움직임들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서둘러서 일행들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후 3시경 대구대교구청에 도착했습니다. 4시경에 사목국 평신도 담당 직원이 미사를 중단한다

는 교구장님 지침이 발표됐다고 알려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으로, 신자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하는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줄줄이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교구평신도위원회 회의는 물론 제3대리구장 취임미사 및 취임축하연이 다 취소됐지요. 2월 22일 예정됐던 사목평의회가 연기됐고 2월 26일의 재의 수요일 예식이 취소됐습니다. 3월 4일 대구평단협 상임위원회의도 취소됐고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236년 만에 신자들과의 미사가 중단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 2019년 10월 26일 대구평단협 정기총회를 마친 후 장신호 요한보스코 보좌주교님과 함께.

사제성화의 날에 신부님들 헌혈에 감동

❖ 사태 초기에 대구는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2월이 지나고 3월과 4월에도 코로나 19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나와도 의료인뿐만 아니라 병상수가 부족해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며칠째 집에서 자가격리하며 대기 중인 확진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결국 진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속출했습니다. 당시 전국 사망자 가운데 90%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발생했어요. 다행히 올해 7월 현재 대구는 총 확진자 6,900여 명에 사망자 189명, 치료중인 분이 18명으로 줄어들면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대구는 저희 평단협이 매년 교구장기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는데 게이트볼대회는 장소 문제로 취소했고, 다른 대회는 모두 가을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가을에도 개최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 조환길 교구장님과 신부님, 평신도들이 헌혈도

하고 이웃에 후원도 하면서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2월 25일에 교구 차원에서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하고 가톨릭이 해야 할 일을 백방으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우선 생활치료센터를 제 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어요. 대주교님은 곧바로 한티 피정의 집(객실 111개, 수용 가능인원 222명)을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치료 시설인 생활치료 센터로 제공하셔서 코로나 19 확산을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3월 20일에는 고열과 폐렴증상을 앓으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숨진 사동본당 주일학생 정 모 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우리 많은 평신도들이 눈물을 흘렸지요. 대주교님께서는 사동성당을 직접 방문해 기도해주시고 정 군의 부모를 만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신도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6월 19일 대구대교구 '사제성화의 날'에 주교좌성당인 범어대성당에서 공동 미사를 봉헌한 뒤 50여 명의 신부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하루종일 헌혈을 했습니다. 사제 성화의 날에 헌혈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19로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멀리 중국한인성당에서도 코로나 19 성금

❖ 당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한국 평협은 물론 전국의 교구에서도 대구에 여러 도움의 손길이 오간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대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웃 교구와 기관, 본

당, 단체에서 앞다투어 정성어린 후원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구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웃 교구인 마산교구 배기현 주교님께서 1억원, 수원교구와 인천교구에서도 1억 원의 큰돈을 보내오셨어요. 부산교구와 전주교구, 의정부교구 카리타스회 등 여러 단체에서 5천만 원을 보내셨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가톨릭경제인회, 성바오로팔수도회, 서울 방배4동성당 사목회,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인천교구 간석4동 본당에서도 각각 1천만 원씩을 후원해주셨어요. 부산한국외방선교수녀회와 수원가톨릭대학학생회,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가톨릭언론인협의회와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 시그니스서울 등 가톨릭언론인단체에서도 성금을 보내오셨고요. 이렇게 전국의 가톨릭 단체들이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정성으로 보내주신 성금이 초기에 코로나 19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 당시 인상 깊었던 사연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코로나 19 퇴치를 위해 힘을 다해주신 가톨릭 의사회에서 십시일반 모금해서 1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보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교황청대사관을 비롯해 군종교구 32사단 한발성당 윤성완 신부님께서 장병들의 정성을 모아 150만 원을 보내주셨던 것도 고마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멀리 해외에서도 대구의 어려움을 알고 성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종교활동이 자유롭게 않은 상황인데도 중국 천진한인성당 교우 분들이 1천만 원, 청양성당과 심천한인성당에서 각각 50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캐나다 켈거리성안나 한인성당에서도 성금을 보내오셨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성금에 대구지역 본당과 단체들이 낸 성금을 더해 7억7천여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대구 평신도 수백 명이 주신 성금이 1억3천만 원이 넘었고요. 이 모두를 더해 총 9억953만7천 원이라는 큰돈이 대구대교구에 답지했습니다.

❖ 당시 후원금 외에 당장 필요한 방역물품을 사서 보내고 후원한 단체와 신자들도 많았지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대전교구에서 방역에 요긴한 마스크 1만여 매와 손소독제 1천여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평협에서도 손병선 회장님이 손세정제 400상자와 마스크 1천 매를 들고 와서 전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주평단협에서 마스크 2천 매, 인천가톨릭경제인회, 홍콩 한인성당 이정기 신부님, 스승예수제자의수녀회에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가수 B.I(비아이, 김한빈)가 면마스크 6천 매를 후원해 준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조환길 대주교님께서는 교구 홈페이지에 일일이 후원내역과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감사편지를 올리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그 선한 마음들이 코로나 19의 예방 백신이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 새롭게 구성된 평단협회장단과 당시 사목국장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 2019년 11월 8일 교구평신도위원회와 서울가톨릭연국협회 주관 서상돈의 '깊은 데로 저어가라' 연극을 관람한 뒤 조환길 대주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한 장이라도 흔쾌히 나누려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구대교구에서는 전달받은 후원금 전액과 방역 물품에 교구 지원금을 더해서 코로나 19 감염병 전담병원인 동산의료원과 대구경북지역 20개 선별진료소, 각 시군구청 보건소와 소방서, 무료급식소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수백 세대에 지원금 및 지원물품으로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중근 토마스 의사의 신앙 발자취를 따라 하일빈 성지순례 중 성 소피아성당 앞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님과 함께.

대구평단협에 총 81개 단체가 소속돼 활동

❖ 이제 대구평단협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구평단협은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함께 봉사하고 계시는지요?

대구평단협은 1967년에 14개 단체가 모여 '대구대교구 가톨릭 액선단체 협의회'가 창립된 것이 그 시초입니다. 당시는 초본당적인 교구 액선단체들의 협의체 조직이었기에 본당대표의 참여가 없는 교구평협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 본당대표를 보완하여 1982년에 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 1999년 대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 재창립하고 대구지역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 교구장 인준단체는 꾸르실료 등 신심단체(13개), 대구광역시가톨릭신우회 등 직장단체(12개), 가톨릭남성조인회 등 직능단체(14개), 가톨릭남성합창단 등 동호회(20개), 가톨릭스카우트 등 학생교사단체(5개), 군중후원회 등 기탁단체(17개) 등 총 81개 단체입니다. 이 중 25개 단체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단은 회장인 저를 포함해 남여 부회장 5명, 사무국장과 서기를 두고 있습니다.

❖ 대구대교구는 특별히 평단협 외에 교구 평신도 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평신도들의 활동이 많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단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 천주교 200주년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3-54항에 따르면 본당은 '사목회'와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본당 사목의 두 기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목회는 본당의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평협은 그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집행기구 또는 활동기구입니다. 이런 차원에

서 대구대교구는 2013년 조환길 교구장님의 인준으로 교구 사목평의회 내에 교구 내 제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구장 자문기구로서 성직자 및 수도자 외에 '평신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평신도위원회에는 교구 평신도를 대표하여 교구 총회장과 각 대리구별 총회장 5명, 교구 평단협 회장, 여 부회장,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평신도위원회는 대구 평신도들의 사도직 수행 및 평신도 운동의 효율성을 위한 심의기구이고, 평단협은 단체 활동을 통해 이를 집행하고 활동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기구가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평신도 복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4년 대구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알현

❖ 「평신도」 독자들에게 좋은 나눔이 된다는 의미에서 회장님께서 어떻게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진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당에서 살다시피 했지요. 군 생활을 마치고 본당에서 교리교사로 활동하다가 꾸르실료를 수강하면서 교회를 위한 봉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4년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맞이하여 방한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알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5월 5일 청소년대회를 통한 서품식을 집전하려고 대구에 내려오셨는데 당시 교구 교리교사연합회장이던 저는 교구 평신도대표단의 일원으로서 교황님을 직접 알현하는 영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친구(親口)를 마친 저에게 교황님께서 학생이냐고 물어보시며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셨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봉사활동이나 교회활동을 제안받으면 그때를 떠올리며 가능하면

순명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교구청 교육국 직원으로 일하던 어느 날, 늦은 나이에 신학교 입학을 고민하던 저에게 당시 교육국장 신부님께서 "너는 신부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신부님 말씀이 맞았는지 제가 그렇게 노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 정말 다양한 평신도운동에 참여하면서 지금의 평단협 활동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다양한 평신도운동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단체들에서 활동하셨는지요?

교황님 방한을 계기로 시작한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스카우트 운동'은 대장을 시작으로 대지도자 및 단위대 육성단체대표, 지구연합회 훈육위원장 및 부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지도자 훈련교수 자격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훈련 육성하면서 현재까지 35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고 있지요. 얼마 전부터는 역시 봉사적인 한국스카우트 훈련교수회 감사 및 가톨릭연맹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 무선통신을 통한 복음화운동을 위해 1994년에 재창립한 '가톨릭아마추어무선사회'(마르코니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교자현양대회 등 각종 대회의 무선통신지원, 이동 무선국 운용은 물론 1,028차례의 교신이 이뤄진 매주 월요일 저녁의 정기라운드교신 등을 통해 복음 및 생활 나누기 등에 26년 동안 쉼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76년 왜관 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인 M.B.W. 수련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0년부터 M.B.W. 추진위원으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명처럼 다가온 이 운동은 사실상 제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며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이후 평신도 사도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3박 4일 과정이었는데 좀 더 많은 수련회 참여를 찾아다니다보니 연간 52주 중 30여 차례의 수련회 봉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속한 본당

만남



▲ 2019년 10월 9일 제44회 교구장기 테니스대회 때 사목국 수녀님과 평단협회장단과 함께.



▲ 김정일 회장이 35년간 봉사하고 있는 사도직단체 '2019 한국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대회' 기념.



▲ 김정일 회장이 30년 동안 봉사하고 있는 사도직단체 '2019 M.B.W. 한국추진회 하계연수' 기념.

에서의 활동이나 봉사는 점점 힘들어졌는데 이것은 지금도 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속으로 더 나아가 교회를 증언해야

❖ 평협에는 어떻게 몸담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M.B.W. 공동체의 추진봉사회를 통한 활동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이 어느덧 30년이 되었어요. 이 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공동체 정신이 저를 더욱더 교회 내에 머물게 했고 정년퇴직 때까지 직장생활에서도 매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힘이 됐습니다. 몇 년 전 'M.B.W. 대구공동체 추진봉사회'의 평신도 대표를 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대구평단협에서 부회장으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6일 교구 평단협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돼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의 행복은 교회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구나 본당이나 구역 및 반모임, 소속된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평신도 사도직에 참여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교회의 사명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 평신도의 행복입니다. 평신도, 곧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구평단협 회장으로서 평신도 사도직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평단협이 평신도 사도직 활성화에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들로 구성된 대부분의 사도직 단체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주로 교구 행사나 일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직(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써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더 힘써야지요.

우리 사도직 단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행사를 돕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더 나아가 교회를 증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평단협이 대구대교구의 발전과 나아가 교회 및 세상의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협의체로서 더 충실히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평신도들이 사도직에 대해 더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사진제공= 대구평단협

수도회 탐방

삶의 순교(殉敎), 순간의 성화(聖化)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글 서희정 마리아

사진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서희정 마리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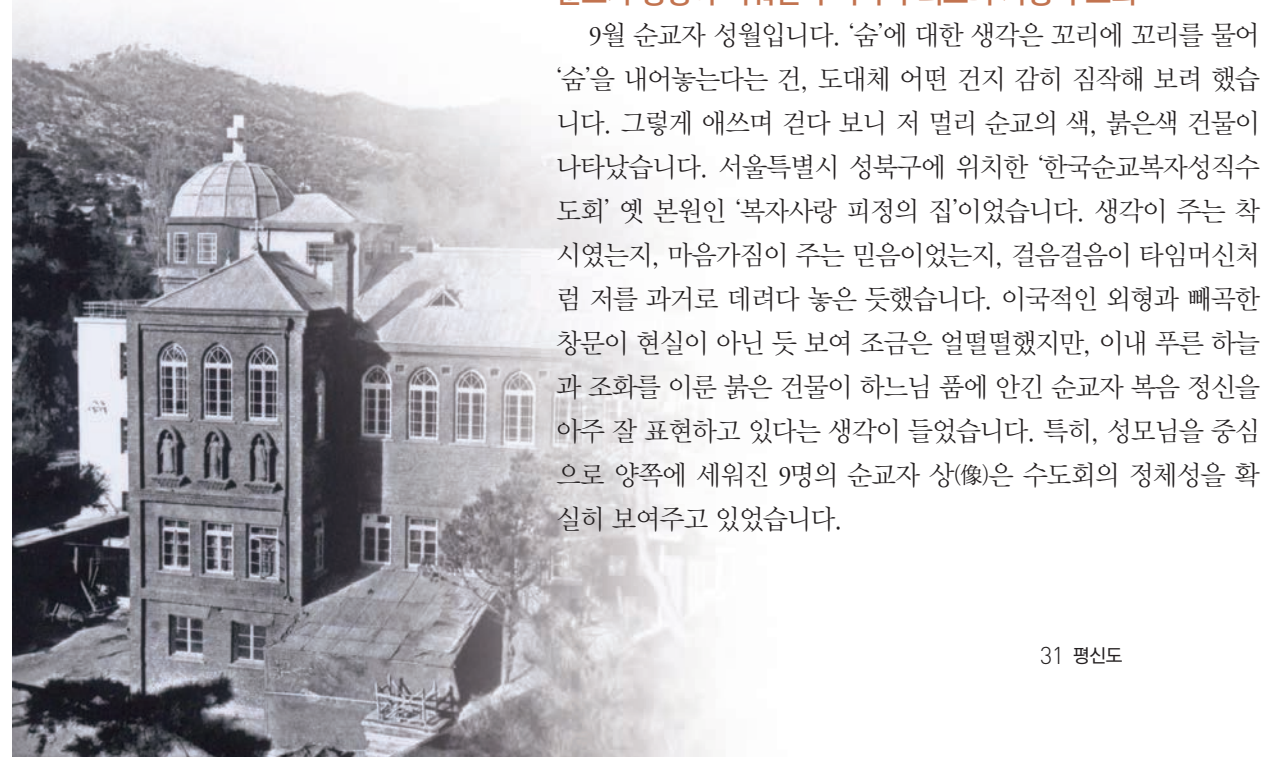
여름의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뜨끈한 진초록의 냄새, 장맛비를 타고 조심조심 다가오는 젖은 땅 냄새, 더위와 맞서 싸우듯 철썩- 당차게 밀려오는 바다 냄새. 기억하시나요?
2020년 여름의 냄새를 기억해 두지 못했는데 벌써 가을입니다.

숨을 기억하시나요?

콧구멍을 벌려 내 몸집만큼의 공기를 양껏 들이마시고, 후- 입으로 길게 내뿜던 숨, 하루하루 서로의 삶을 부대끼며 주고받던 이웃의 숨. 기억하시나요?
생(生)을 위해 생명의 구멍을 마스크로 막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찾아온 이후로, 나의 숨도, 수많은 이웃의 숨도 기억에서 흐릿합니다.

▼ 1960년대 구 본원 3차 건물 완공 모습



순교자 영성이 피워낸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 수도회

9월 순교자 성월입니다. '숨'에 대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숨'을 내어놓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건지 감히 짐작해 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걷다 보니 저 멀리 순교의 색, 붉은색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옛 본원인 '복자사랑 피정의 집'이었습니다. 생각이 주는 착시였는지, 마음가짐이 주는 믿음이었는지, 걸음걸음이 타임머신처럼 저를 과거로 데려다 놓은 듯했습니다. 이국적인 외형과 빼곡한 창문이 현실이 아닌 듯 보여 조금은 얼떨떨했지만, 이내 푸른 하늘과 조화를 이룬 붉은 건물이 하느님 품에 안긴 순교자 복음 정신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성모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세워진 9명의 순교자 상(像)은 수도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1973년 2월 12일 제3회 종신서원

대문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 흉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부님은 신학생 시절부터 완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수도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명은 외국 수도회 입회가 아닌 한국 수도회 설립인 것을 깨닫고, 신부가 된 이후인 1953년 10월 30일,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마 12, 1)이 된 한국 순교자의 복음 정신을 삶으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수도 생활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선조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수도회를 창설해 주신 신부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뵈지 못한 신부님



▲ 2019년 종신서원 후 단체사진.

얼굴이 하도 친숙하여 흉상을 한참 바라본 후에야 벨을 눌렀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 속에는 잠시 내려놓았던 짐을 들고 다시금 길을 나서려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이 사진이 왜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나름의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영준 모이세 수사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사님은 아주 유쾌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 제가 내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순교(殉敎)’였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너무 슬프고 무겁고 아픈 일이니, 기쁘고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가 어쩐지 낯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저의 어리석음이었지만 말입니다.

기쁨의 원천, 면형무아(麵形無我)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에는 지원기 때부터 지켜야 할 두 가지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올 때, 벗은 신발을 거꾸로 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을 두 손으로 닫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수도회 영성 중의 하나인 순간



▲ 매년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의 ‘깨어있음’ 즉, 순간을 성화시키는 ‘점성(點性)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성정신이란,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무(無)를 닮은 존재인 점(點)처럼 비움과 겸손의 길을 걸으면서 점처럼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는 정신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곳, 특별한 때가 아닌 일상 속 매 순간을 성화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제야 시장을 배경으로 한 할머니의 사진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어렵פות이 알 듯도 싶었습니다.

이 점성정신은 육신의 내적, 외적, 영혼의 침묵(沈默)인 ‘순교’(나를 버림과 비움)와 맥을 잇고 더불어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마주하며 사는 대월(對越) 생활과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삶이 곧, 인간적인 본성이 없어진 무아(無我)에 하느님께서 오셔서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는 면형무아(麵形無我)에 도달하게 하는데 이것이 수도회 영성의 정점입니다. 창설자이신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이 수도회 영성을 정립하시고 수도성을 ‘무아(無我)’로 정한 것 역시 이러한 영성을 살고자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도회 영성을 듣고 나니 ‘순교’는 ‘숨’을 내어놓는 아픔과 비장함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느님이 사시는 삶이니(갈라 2,20) 한없이 기쁘고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신앙 선조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저 그 정신을 이어 사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안의 나를 죽이고 죽여도 그때마다 용케(?!?) 부활하는 나 때문에 매번 괴로



▲ 김선규 프란치스코 수사 작품



▲ 복자사랑 피정의 집 성당



▲ 복자사랑 피정의 집

워하는 일이 다반사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복자(福者)’수도회가 맞다 싶었습니다.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흠의 먼지로 사람을 빗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 그리고 보면 ‘숨’이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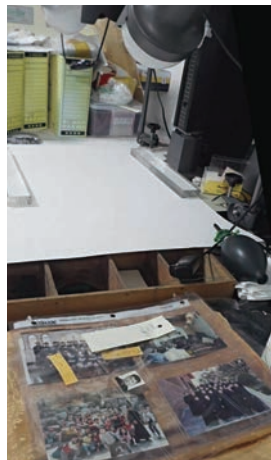
주님의 숨으로 산다는 건

국내뿐 아니라 프랑스, 마카오,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페루에도 진출한 수도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두 명의 베트남 출신 성직 수도자를 배출해 지금은 총 145명(2020년 2월 8일 기준)의 형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

나눔



▲ 창설자 무아 방유룡 ▲ 이영준 모이세 수사.
안드레아 신부 흉상.



▲ 수장고에는 수도회의 역사가 보
관되어 있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끔 기도를
마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나는 어떤 글을 쓰
고 있을까?

복자 최여검 마티아는 생의 마
지막에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
시에 영감을 받아 김유정 발레리
아 자매님이 작사를 하고, 한국순
교복자성직수도회 한장호 베네딕
토 신부님이 곡을 붙여 '순교자의
기도'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신서원이 매년 끊이지 않는 양적 성장은 물론이
고, 50주년을 맞은 2003년부터는 내적 성장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 심포지
엄, 국내 심포지엄을 번갈아 여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회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 미디어 사도직을
통한 다양한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로 영상 촬영과 음악 작업을 위한 장비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평신도와와의 소통도 놓치지 않기 위
해 코로나 19라는 팬데믹 상황에 맞는 대침묵 피
정 프로그램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둔 상
태였습니다. 그야말로 활기찬 에너지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하느님의 숨결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란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입
니다. 그러다 문득 설명 중간중간 잊지 않고 들어
가는 모이세 수사님의 재치도 수도회 영성이 빚
어낸 결과인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녁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에게 부
디 자비를 베푸시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작가'
로 살다 죽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말입니다. 제
가 주님 곁으로 가고 나서도 이 세상에 남아 주님
을 전할 '이야기'를 남기고 죽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고 죽을 수 있게 해

어둠보다 어두운, 홀로 걷는 이 밤길에
나 당신 품으로 나 당신 곁으로
차가운 새벽 끝에 날 기다린 당신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신 당신
나 당신을 따르리 그곳으로 돌아가리
가다리는 당신 품으로 나 되돌아가리
사랑하는 나의 님아 내 영혼을 받아주오
세상 떠나 당신 향하는 나를 받아주오

내 고통과 자유를 당신에게 바치리
찢겨진 내 맘을 받아주신 당신
만 번을 죽어서도 마땅한 이 몸을
내 통곡 소리를 받아주신 당신
당신을 따르리 그곳으로 돌아가리
가다리는 당신 품으로 나 되돌아가리
사랑하는 나의 님아 내 영혼을 받아주오
세상떠나 당신 향하는 나를 받아주오

수도원 탐방을 마친 시점에서 이 노래를 들으
니, 제가 어떻게 죽는지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
라 정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순간
의 '숨'이 아름다워야 할 텐데요. 비록 마스크 안
에 갇혀 있다 해도 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유물 소개 2

서울대교구장 착좌식

— 초대장, 안내장, 안내도 및 배치도, 기념 상본

글·사진
송란희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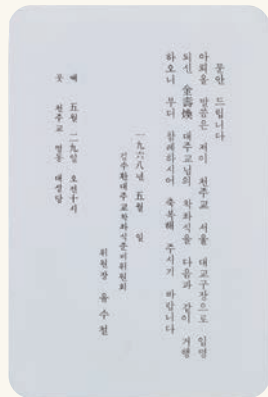
서울대교구 설정 200주년 기념 역대 교구장 자료 제1집 『김수환 추기경 유물 자료집』(한국교회사연구소, 2020)에 수록된 추기경님의 유품을 소개합니다. 추기경님의 유품은 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넘어 사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신앙과 삶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드리세
착한 목자 보내시는 주께 영광 드리세
돌아보니 칠십년 종현의 Cathedral
하고한 피눈물에 아롱진 그 역사
세상은 뒤바껴도 십자가는 남느냐
새 주교 되신 오늘 하늘빛도 푸르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대주교님
길 잃은 양의 무리 진리로써 이끄소서

홀어진 주의 양떼 사랑으로 도우소서
여럿을 위한 희생 미리 기꺼하소서
주께서 보내신 님 그 이름도 Stephano
섬김에 바치신 몸 찬란하다 그 영광
먹구름 겹히어라 슬픔 너도 가거라
몸과 맘 하나되어 오직 우리 따르리라.”
- 「착좌식 축가」(작사 최민순, 작곡 이문근)

김수환 추기경은 주교품을 받고 마산교구장으로 착좌한 지 2년 만인 1968년 5월 29일
에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했다. 당시 서울대교구는 교구장 노기남 대주교가 1967년에 은
퇴하면서 수원교구장 윤공희 주교가 대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었다. 김수환 주교는 마산교
구장이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 총재, 한국주교회의 공동 부의장, 매스컴위원회 위
원장을 맡은 데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 윤공희 주교 대신 참석해야 하는 보궐대표로까
지 선출되어 마산과 서울을 오가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1968년 4월 22일 김수환 주교는 마산교구청에서 교황대사 이폴리토 로톨리(Ippolito
Rotoli, 1914~1977) 대주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무슨 일인지에 대한 귀뜸이 전혀
없었기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23일 아침, 서울 궁정동 교황대사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김수환 주교는 뜻밖의 소식을 접한다. 교황청에서 자신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했다는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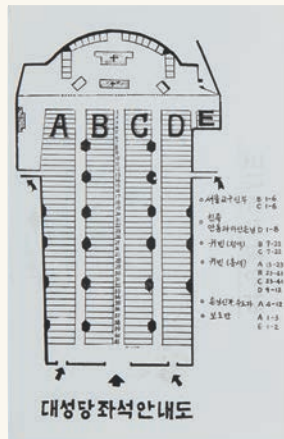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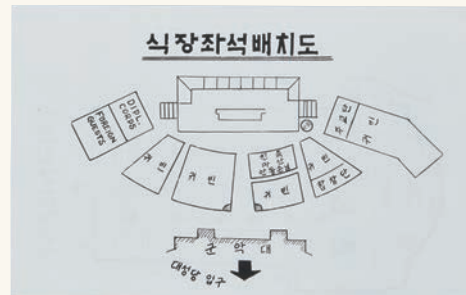
▲ 2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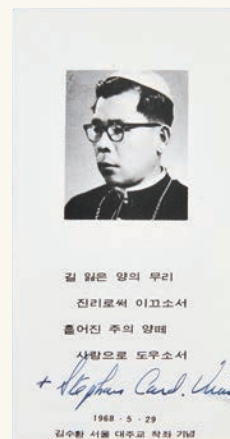
▲ 4



▲ 5



▲ 6



▲ 7

- 1 서울대교구장 착좌식 초대장
1968 | 10.5×15.8 | 김수환추기경기념관 소장
- 2-3 서울대교구장 착좌식 안내장(앞, 뒷면)
1968 | 13×21 | 김수환추기경기념관 소장
- 4 대성당 좌석 안내도(앞면)
1968 | 20.5×21 | 김수환추기경기념관 소장
- 5 축하식장 좌석 배치도(뒷면)
1968 | 20.5×21 | 김수환추기경기념관 소장
- 6-7 서울대교구장 착좌 기념 상분
1968 | 6.8×14 |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소장
뒷면에 친필 서명이 들어 있다.

식이었다. ‘왜 저인가요?’라는 물음에 교황대사는 ‘누군가는 젊어져야 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는 대답을 했고 그 말에 더 이상 ‘못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교황대사는 로마와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하기 전에는 비밀로 부쳐달라고 당부했고, 4월 27일에서야 김수환 주교의 대주교 승품과

서울대교구장 착좌가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경향신문』에서는 이를 1면 기사로 다루었으며, ‘40대 대주교가 말하는 천주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집중 대담 기사도 실었다. 교회 안팎으로 김수환 주교의 대주교 임명은 큰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채 못 되어 알게 될 추기경 임명 소식에 비할

바 못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명동 주교좌성당 축성 70주년 기념일에 열린 서울대교구장 착좌식을 위해 제작된 「초대장」은 김수환 대주교 착좌식준비위원회 위원장 유수철 신부 명의로 발송되었다. 유 신부는 당시 서울대교구 상서국장이었다. 초대장 내용은 “문안드립니다. 아뢰을 말씀은 저희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으로 임명되신 金壽煥 대주교님의 착좌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오니 부디 참례하시어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때 5월 29일 오전 10시, 곳 천주교 명동대성당”이다.

「안내장」은 총 4면으로 표지에는 대주교 문장과 사목 성구 “PRO VOBIS PRO MULTIS”(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를, 뒷면에는 대주교 착좌를 기념하여 최민순 신부가 작사하고 이문근 신부가 작곡한 축가를 넣었다. 이날 착좌식 순서는 입장 행렬, 불라(bulla, 임명 칙서) 낭독, 착좌 서약, 팔리움(pallium) 전달, 착좌, 순명 서약, 공동 집전 미사, 신임 대주교 강론, 퇴장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국 주교와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로돌리 교황대사가 임명 칙서를 낭독했다. 이어서 진행 예정이었던 팔리움 전달 예식은 로마에서 도착하지 않아 생략되었다. 팔리움은 교황과 대주교가 목과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양털로 만든 띠로, 대주교의 임명에 충실하고 교황과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이다. 김수환 대주교는 이날 받지 못한 팔리움을 이듬해 추기경 서임식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29일 바티칸 성 마틸다 경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게 직접 받았다.

착좌식 옆에 인쇄된 축하식 식순은 개회사, 국민의례, 꽃다발 증정, 예물 증정에 이어 국회의장이효상 씨의 환영사와 축사(정일권 국무총리와 청담 대종사), 치사(교황대사 로돌리 대주교), 답사, 축가, 폐회사 순으로, 미사 후 대성당에서 수많은 손님들이 운집한 가운데 공군 군악대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이날 대주교는 “천주께 순명하고 모든 교회법을 따르며 이단 없이 교우들을 가르칠 사명을 다하겠다.”는 착좌 서약을 했고, 공동 집전 미사 때 서울대교구장으로 첫 강론을 했다. “제가 이 자리에 착좌하는 것은 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모든 이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칠 때 이 교회는 천주의 장막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모시고 있다는 그리스도를 생활로써 증거해 달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바쳐서 사회에 봉사하는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추기경은 서울대교구장 착좌 후 다음 해 신년에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기자는 기사의 서두에 그날 만난 대주교의 모습을 묘사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김수환 대주교는 명동 한 복판에 자리잡은 성당 안에서 조용히 기유년(己酉年)의 새 아침을 맞았다. 69년의 칼렌다 첫 장을 넘긴 그의 나이는 사십칠 세. 한국 최고의 성직자라는 의자의 권위에 비해 너무나 젊은 가능(可能)의 나이다. 대구 사투리를 그대로 쓰고 있고 일제 말기에는 학병에도 끌려간 일이 있는 경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 대주교는 검은 수단과 근엄한 표정으로 그의 젊음과 지성을 감싸고 있지만, 어딘가 서민과 더불어 오늘의 한국을 사는 한 인간의 체온을 짚게 풍긴다.”(『동아일보』, ‘새해 새 아침’, 1969. 1. 6, 1면)

기자의 표현처럼 그분은 추기경이기 이전에 ‘오늘의 한국을 사는 한 인간의 체온’을 짚게 풍겼으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생활로써 증거하는 세속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김수환 추기경을 사랑하고, 기억한다. 

나눔

근 · 현대 신앙의 증인들 3

폴리 신부와 북수동 성당

글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 미카엘 대천사상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한국 교회의 근 · 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시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신앙의 증거자”인 이분들 가운데에는 어쩌면 살아생전에 직접 뵈는 독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식(라자로) 주교님의 바람대로 “특별히 이분들이 하늘에서 우리 교회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왕림 본당 관할 수원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원가톨릭대학교 초입에 오래된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다는 왕림(旺林) 성당입니다. ‘갯등이 성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갯등이란 갯을 쓴 등불이라는 뜻으로 신부를 지칭하는 은어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교우촌이 형성된 것은 1876년경으로 여겨집니다. 천주교 4대 박해 중 전국적으로 가장 오래 지속되어 수많은 순교자를 탄생시킨 병인박해(1866~1873년)로 뿔뿔이 흩어졌던 신자들이 이곳에 다시 모여 공소를 설립하였고, 한불수호통상조약 이후 1888년 7월에 이 공소는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로써 왕림 본당은 1882년 종현(현 명동) 본당, 1883년 제물포(현 인천 답동) 본당, 1887년 원산 본당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설립된 본당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수원교구 뿌리가 된 것이지요.

천주교가 활기를 띠면서 신자수가 점차 늘어나자 왕림 본당에서는 여러 곳에 공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수원 읍내에도 신자가 많아져 이곳 유지 신자들은

1891년에 남수리(南水里) 황학정 인근의 밭 800평과 25칸짜리 한옥을 매입하였고, 화양학교(華陽學校)를 개설하는 한편 ‘천주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일부를 공소 강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갯등이 본당 관할의 수원 공소입니다. 공소 신자들은 1897년 3월 북수리(北水里)의 ‘팔 부잣집’ 300여평 매입하여 강당과 사제관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왕림 본당 김원영(金元永, 아우구스티노) 주임 신부는 31개에 달하는 관할 공소를 혼자 사목하기 힘들어지자 뮌헨 주교에게 수원에 사제를 파견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수원 신자들의 끈질긴 호소와 김원영 신부의 강력한 진언으로 1923년 11월 초 르 메르(L. Le Merre, 李類斯)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수원 공소는 드디어 수원 본당으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본당은 1959년 11월 고등동 본당을 분리하면서 이름이 북수동(北水洞)으로 바뀝니다.

본당으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된 1925년 5월, 한국을 두 번째로 방문한 베네딕토회 오틸리엔 연합회의 노르베르트 베버(N. Weber) 총아빠스가 수원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927년에 펴낸 그의 여행기 『금강산』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제관이라지만 주위의 낮은 한옥과 다를 바 없고, 성당은 그 속에 있어 눈에 띄지 않았다. 알고 보니 ㄱ자 모양으로 붙어 있는 두 개의 낮은 한옥이 성당이라고 한다. 오른쪽 모퉁이에 제대가 있고, 한 채는 남자용, 다른 한 채는 여자용이어서 한국 관습이 요구하는 남녀의 구분이 저절로 되어 있었다.”

폴리 신부가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하다

폴리(D. Polly, 데시데라토, 沈應榮)는 1884년 10월 27일 프랑스 비비에(Viviers) 교구의 베르노스크(Vernosc)에서 아버지 조제프 펠릭스 폴리(J.F. Polly)와 어머니 마리 빅토린 포제(M.V. Fauget)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01년 9월 11일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하여 선교사를 꿈꾸던 그는 1906년 12월 말레



▲ 폴리(데시데라토, 沈) 신부

이시아 페낭 신학교로 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듬해 5월 28일 사제 서품을 받은 뒤 8월 8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곧바로 제물포(현 답동) 본당 임시 주임으로 잠시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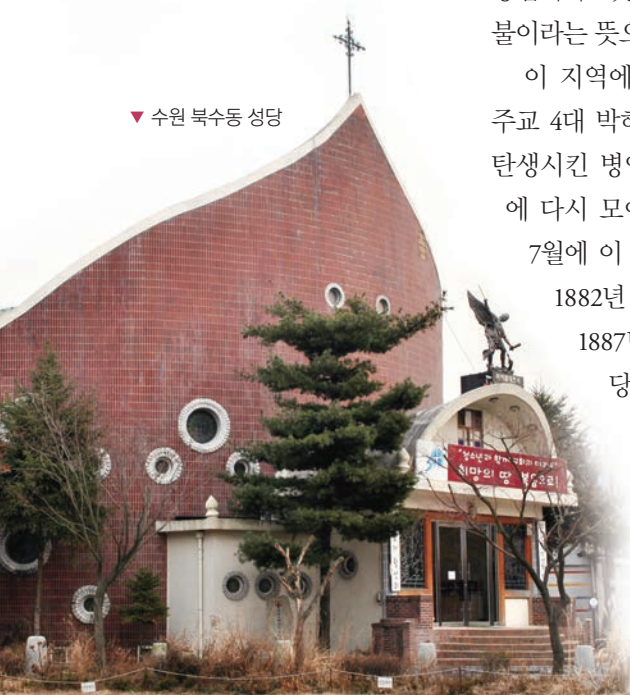
다가 1908년에 충청도 홍성의 수곡(須谷) 본당 초대 주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그 해 8월 육군 보병 장교로 참전하였고, 종전이 되자 1919년 9월 23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산 동문동(東門洞) 본당 제2대 주임을 거쳐 1921년 7월 서울 용산 예수성심신학교로 발령받아 교수로 재직하였고, 1923년 6월 원주 원동(園洞) 본당 제8대 주임, 1928년 5월부터는 대전(大田, 현 목동) 본당 제3대 주임을 맡아 사목하였습니다.

폴리 신부가 수원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다

크렘프(H. Krempff, 헨리코, 慶元善) 신부와 박일규(朴一圭, 안드레아) 신부를 거쳐 1931년 5월 수원 본당 제4대 주임으로 폴리 신부가 부임하였습니다. 1948년 8월까지 17년 동안 재임하면서 폴리 신부는 수원 본당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지요. 부임하자마자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명도회(明道會)’를 조직하고 전교에 힘썼는데, 전교가 잘되지 않기로 소문난 수원에서 재임 동안 신자수가 2천 명으로 증가한 것은 오로지 폴리 신부의 독려와 회원들의 열성 때문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외교인을 한 번도 성당에 데려오지 않고 미사 참례하러 온 신자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팔짱을 끼고 구경만

▼ 수원 북수동 성당





고덕 양식의 수원 옛 성당

할 수 있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을 옆에서 구경이나 하면서 물 한 그릇 떠다 드릴 생각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겠소.”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제2의 고향이요 성소의 꿈을 키운 수원 본당과 인연이 있는 제2대 수원교구장 김남수(金南洙, 안젤로) 주교의 일화에서 폴리 신부 성품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34년에 새로 간행된 『천주교 요리 문답』 세 편을 모두 공부한 뒤 참고를 받아야 했는데, 1편만 공부하고 폴리 신부에게 참고를 받으러 갔다가 “6학년 학생이 1편밖에 외우지 못했는가?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호통 치는 바람에 아주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6학년 졸업 무렵 신학교에 간다고 했더니 문답 참고에도 불합격한 학생이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네가 신학교엘 가? 덕원

신학교는 몰라도 용산신학교엔 못 가.”라고 할 정도로, ‘심 딱딱이 신부’라는 별명이 어울릴 정도로 엄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협심 강하고 일제 통치에 저항하는 반골 기질도 있고, 식민지 백성이 된 한국 민족을 연민의 정으로 사랑한 속 깊은 분으로 많은 신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폴리 신부가 부임 이듬해부터 착수한 일은 성당 건축이었습니다. 가난한 신자에게서 건축 기금을 모으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폴리 신부는 그동안 근검절약하며 모은 돈과 신자들이 낸 교무금, 파리외방전교회에서 마련해 준 기금으로 공사를 시작했지요. 건축비가 부족하여 고향의 홀어머니가 삶바느질로 모은 돈까지 보탠 끝에 공사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고, 마침내 수원 지역 최초의 벽돌조 고딕 양식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32년 11월 13일 라리보(A. Larribeau, 元亨根) 보좌 주교 주례로 10명의 신부들이 공동 집전한 성당 봉헌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듬해 4월 23일에는 종 축복식도 거행하였는데, 폴리 신부의 고향에 사는 가난한 신기료장수가 구입해서 보내준 소중한 종이였습니다. 1934년 11월 『경향잡지』 제794호에서 성광과 성체등을 봉헌한 두 여성을 소개하면서 “그 높은 종각에서는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시민들의 귀를 조석으로 흔들어 주어 어서 종교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재촉한다.”고 묘사되었던 이 종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에 의해 강제 징발당할 뻔했지만 폴리 신부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구장의 협조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지만, 일제의 전시 동원령으로 성당과 부속 건물이 징발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 폴리 신부는, 일제의 패망으로 맞이한 해방의 기쁨을 신자들과 함께 나누며 감격해 마지않았습니다. 폴리 신부의 감회어린 강론에 눈물을 흘린 신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대중 집회에서의 연설로 본의

아니게 정치에도 밝은 인사로 유명해져서 한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수원 유지들과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자문을 구할 정도였지요.

천안 본당 재임 중 북한군에 피랍되어 순교하다

1948년 5월 8일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된 신설 교구가 대전에 설립되어 충청남도 전역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서울과 대구 대목구에 소속되었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신설 교구로 통합되면서 1948년 8월 8일 폴리 신부도 수원을 떠나 남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천안(현 천안 오룡동) 본당 제6대 주임으로 전임되었습니다.

신설 교구의 제반 행정이 채 자리도 잡기 전인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포격에 성당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란을 떠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본당 신자들의 권유에도 폴리 신부는 “신자가 천안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떠날 수 없어. 신부가 신자를 놔두고 도망가? 그건 신부도 아니야.”라고 뿌리치며 성당을 지키다가 8월 23일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공산군에게까지 천주교를 믿으라고 했던 폴리 신부는 당시 공산군이 몰수하여 정치보위부로 사용하던 대전 목동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프랑수아 동료 신부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수도원 인근에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대전 형무소가 있었는데, 수용자들로 가득 차자 공산군은 이곳 수도원과 성당에도 감금하였던 것입니다. 북으로 후퇴하기 직전인 9월 24~26일 공산군은 대전 형무소와 수도원에 가두었던 많은 사람



▲ 빨리 화랑 유품 전시실과 폴리 신부 기념비

들과 42명의 미군 포로를 살육하고 사체를 한 구덩이에 파묻고 우물에도 던져 넣었습니다. 폴리 신부 또한 이때 피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 신부가 세운 고딕식 성당은 건축된 지 46년 만인 1978년에 철거되고, 지금은 외부 전면 구도가 주교관(主敎冠) 모양이고 주보성인 미카엘 대천사상이 눈길을 끄는 복수동 성당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본당에서는 1979년 4월 5일 이 새 성당 봉헌식 날 폴리 신부를 잊지 못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거행하였으며, 2007년 11월 21일에는 소화초등학교 건물을 ‘빨리 화랑(Polly Gallery)’으로 개조하여 폴리 신부와 관련된 유품(성합, 성광, 십자가, 성작 등)과 사진을 상설 전시하며 그분을 기리고 있습니다. 

참고 도서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자료집 제2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2018.

「수원의 호랑이 서양 신부」, 『경향잡지』 제1240호(1971. 7), pp. 36~42.

『복수동 성당 70년사』, 천주교 수원교구 복수동 성당, 1994.

나의 신앙 선조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다”



김학순 프란치스코 / 가평성당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내가 가슴에 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해답을 찾고자 이곳저곳 기웃거리 보아도 답은 찾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야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 것은 다 장모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가 식구는 전부 천주교인이었고 오직 막내 사위인 나만 비신자였습니다.

늘 마음속으로는 허전함을 갖고 방황하면서도 회사일만 붙잡고 사는 사이 장모님은 기다리다 지쳐 하늘나라로 가셨고, 느닷없이 다가온 장모님의 부재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기

다려 주실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탓이겠죠.

장모님의 장례미사 때는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후회가 막 밀려들었습니다. 온갖 회한들, 신자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불경스럽게 이야기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마 사위넷 중 내가 가장 많은 눈물을 보였을 겁니다.

장례미사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방황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장모님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가고, 처형과 처남 처남댁 모두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속으로 대단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이 되던 무렵, 처남이 꿈속에서



장모님을 뵈었는데 하얀 빛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난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는 말을 처남이 했을 때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도의 힘!

이것을 내가 실감할 줄이야. 이때 나의 마음이 움직여 예비 신자 교리반에 신청하고 프란치스코란 이름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때가 쉼.

장모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보물입니다. 생전에는 저에게 한마디도 신앙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던 분이 돌아가시며 내게 남겨준 무엇보다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가 식구 누구도 내게 신앙에 대해 강요한 적이 없었고 언제나 조용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온 탓이겠지요. 아내 로즈마리도 묵묵히 나를 지켜보며 기도를 올렸을 뿐이지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 아시시에서 그 영험한 빛을 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이었는데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에서 별판으로 쏟아지는 그 신비한 빛을 보았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 로즈마리는 내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하라고 그때부터 얘기했지요.

하얀 빛이 나의 삶에 몇 군데 등장합니다만 아시시에서 보았던 빛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일상적인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달리 보았습니다.

장모님이 내게 보여준 하얀 빛도 방향하며 살아가는 막내사위가 안타까워 던진 마지막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그 빛을 따라가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가 나의 친구들에게 신앙을 말할 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나의 경우에 신앙을 가지면서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는 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강했죠. 그런데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무섭지 않고 약간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딱히 뭐라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만남에 대한 설렘같은.

그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내 느낌을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짧지만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처가에 가면 늘 문 앞까지 뛰어 나와서 안아주시던 박영자 가타리나 장모님이 주신 선물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장모님, 좋은 곳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 곧 만날 때까지.

저 프란치스코는 로즈마리랑 가평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콘 - 세 번째 이야기

성모님의 이콘 I



장궁선 예로니모 신부 / 서울대교구 이콘 연구소 소장

1.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

옛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을 처음으로 그린 이는 복음사가 루카였다고 한다. 가톨릭 성인전 루카편에도 루카의 직업을 '의사이며 화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루카가 의사이며 화가였다는 점은 동·서방 교회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루



▲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 호데게트리아 15C, 디오니시.

카 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성모님께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 루카와 성모님이 각 별히 교류했었다는 전승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루카와 성모가 만났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루카가 그렸다고 전하는 최초의 성화는 성모님과 예수님 모두 정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묘사하는 '호데게트리아' 즉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이다.

성모님의 시선은 아기 예수를 보고 있지 않으며, 이 성화를 보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한 손으로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한 손은 아기 예수를 향하고 있다. 이는 '이 분이 너희의 주님이시다'라고 제시해 주고 계신다. 또한 우리를 위한 중재의 기도를 바치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모님 성화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머리와 양 어깨에 3개의 표식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는 성모님의 동정을 나타낸다. 즉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는 중에도, 낳은 후에도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은 정결한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다.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은 후에도 동정이심은 우리가 모두 아는 교리이나 낳는 중이라는 부분은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이는 유다 율법에 따라 해산한 여인은 부정하다고 한데서 기인하여 성모님은 그 또한 조금도 동정과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

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유다교의 율법적인 생각은 중세를 거치며 교회 내에도 들어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2월 2일을 성모님이 유다교 율법에 따라 해산 후 성전에서 정결례를 거행했던 것을 기념하여(레위 12장) '성모 취결례 첨례'로 지내다가 공의회 이후로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되살려 주님의 봉헌 축일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성모님 머리 좌·우에는 그리스어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글자가 약자로 쓰여져 있어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후 이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를 그 출발점으로 하여 다양한 성모 이콘들이 제작되었는데 그 성화의 종류와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각지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성모의 발현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이콘들이 그려졌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변형이 생겼기에 러시아, 그리스, 불가리아 등 각기 다른 나라에 없는 자기만의 독특한 이콘들이 있기에 그러하다. 물론 서방교회와 같이 임의적이며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듯 지역과 시대, 그리고 기적 사건에 따른 다양한 성모 성화들이 생겨났다.

2. 기도하는 성모

성모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로마의 카타콤바 벽화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 모습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여러 종교에서도 행해 왔던 가장 기본적인 기도 자세 중 하나로 이러한 형태의 자세를 기도하다(orare)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Orans 또는 Orant라 부른다. 그래서 카타콤바의 불가마 속의 세 청년이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그린 벽화에서도 그들은 두 손을 들고 있어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닌 평화로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현재 미사 등에서 사제들이 기도할 때 가



▲ 「기도하는 성모」, 오희리드, 성 클레멘스 성당 13C

장 많이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이 기도하는 성모의 성화는 주로 성당 가장 깊숙한 안쪽 지성소 위의 반원형 천장(apex)에 많이 그려진다. 즉 지상에서 시작된 벽이 제단을 둘러싸고 둥글게 올라가 천장과 만나는 부분에 반원형의 둥근 지붕인 앱을 만드는데 여기에 이 형태의 이콘이 주로 그려진다. 즉 대부분의 성당 중앙 천장에는 전능자 그리스도를 그려넣어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어서 성모님이 그려지는 둥근 반원형 천장인 앱스는 지상에서 시작된 벽이 끝나 천장과 닿는 중간 부분으로 성모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지상의 인류 사이의 중재자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스탄불(구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대성당의 제단 위 앱스에도 오늘 소개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다. 성모님을 모자이크로 묘사하고 있다. 많은 정교회 성당들과 비잔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스페인 이야기들”



김원창 미카엘 / 평화방송여행사



▲ 이스탄불 성 소피아 대성당 엠스



▲ 「보호의 성모」, 1800년경 중앙 러시아

틴의 영향을 받은 서방 가톨릭의 많은 성당들에서 지성소 위의 반원형 천장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나 아기 예수가 함께 묘사된 성모가 주로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모님은 지상과 천상의 중재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보호(베일)의 성모

이 이콘은 10세기에 오늘날 이스탄불에 있던 블라케르네(Blacherne) 궁전의 성당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을 묘사한 것이다. 이 성당은 성모님의 가운과 베일, 그리고 허리띠 일부 등의 유물을 팔레스티나에서 가져와 5세기 동안 보관하던 곳으로 많은 순례자들이 찾던 곳이었다.

10월 1일 성모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과 천사들에 둘러싸여 양손에는 흰 천을 걸치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기도하신 후 성모님은 일어서시어 자신의 베일을 보호의 표시로 사람들 위로 펼쳐 보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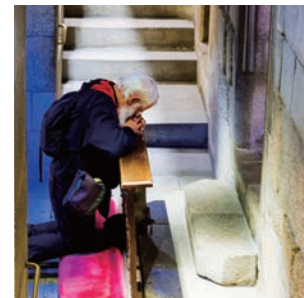
이 기적이 일어나던 때에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의 침략에 위협당하고 있었고 신자들은 성당에 모여 성모님의 보호를 청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성모님 발현 후 위험들은 사라졌고, 도시는 유혈과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화면 하단 오른쪽에는 이날 현장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의 안드레이라는 수행자가 성모님의 발현의 의미와 베일을 펼쳐 보이시는 행동의 의미를 자신의 제자 에피파니우스(Epiphanius)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현시를 목격하고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수행자 안드레이가 설명해 주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화면 하단 중앙에는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성가 작곡가 로마노스이다. 이날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은 아니지만 같은 날인 10월 1일이 축일이기에 함께 묘사해 놓았다. 로마노스가 손에 든 두루마리에는 이날 축일 전례문의 한 구절이 쓰여있다. “오늘 성모님께서 성당에서 우리 앞에 서시어 우리를 위해 성인들의 합창단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드린다.”

이 기적은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한 순례자들로 인해 러시아에 전해지게 되었으며,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12세기에 10월 1일을 이 성화의 축일로 정해 오늘에까지 기념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이 보호의 성모 축일을 1940년의 이탈리아 침공에서 그리스 민족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날과 합쳐서 1952년 그리스 정교회의 시노드에서 10월 1일에서 10월 28일로 축일을 옮겨 기념하고 있다. 



▲ 야고보 성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순례자.

가들이 그 경이로움을 드러낸 곳이자, 마녀사냥의 잔인함이 곳곳에 배어 있는 곳.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스페인, 유럽의 본토에서 보면 평균 해발 2,000m가 넘는 피레네 산맥 아래 위치해 있는 탓에 때로는 아프리카의 일부처럼 여겨져 변방이라 불리던 땅이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둔 유럽의 역사에서 그곳은 세상의 끝이었다. 피레네산맥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와 맞닿아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가까이에 아프리카를 두고 있어 유럽과 아프리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던 곳이기도 하다. 어쩌면 대륙의 기질과 해양의 기질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땅이지만, 때로는 두 개의 기질이 충돌하여 놀라운 만큼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기도 한다.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이면서 동시에 이슬람 문화를 가장 복합적으로 내재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스페인은 건국신화가 없는 대신, 전설과도 같



콜럼버스 동상.



▲ 부르고스 주교좌성당.



▲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주교좌성당 향로 미사



▲ 부르고스 주교좌성당 엘시드 묘



▲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야고보 사도의 무덤)



▲ 사라고사 기둥 위의 성모

은 수많은 진짜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가톨릭의 문화와 영성은 여전히 그 이야기들의 맥을 이어주고 있다. 스페인 순례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 중 몇 가지만 간추려보자.

한니발의 전설은 기원전 3세기 초반에 지중해의 패권을 가지고 다투던 로마 카르타고의 이야기에 등장한다.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한니발은, 스페인 땅을 카르타고에 복속시킨 아밀카르 바르카 장군의 아들로서 '최고의 전술 지략가'라 불린다.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작전을 통해 코끼리를 이끌고 피레네와 알프스를 넘어 15년 가까이 이탈리아 전역을 누비며 로마 제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다. 결국 고전하던 로마가 한니발의 본거지인 스페인 본토를 공격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고, 로마에 있던 한니발의 회군을 이끌어낸다. 승승장구하던 한니발이 스페인에서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와의 자마 전투에서 패하면서 그의 전설은 아쉽게 막을 내리게 된다. 그는 카르타고를 떠나 셀레우코스 왕조의 군사고문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진다). 놀랍게도 한니발의 이름은 페니키아어로 '한니=은총', '발=바알'이어서, 구약성서에서 등장하는 '바알(神)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고딕 성당으로 유명한 부르고스에는 엘시드의 이야기가 배어있다. 800년 가까이 스페인의 중남부를 차지했던 이슬람을 소위 '국토회복운동'으로 몰아내던 오랜 기간, 가장 뛰어난 용사이자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 장군에 대한 이야기이다. 11세기, 그는 카스티야 왕국의 귀족 출신으로 복잡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카스티야 왕국, 레온 왕국, 사라고사 왕국을 떠돌아다니며 용병으로 살아갔다. 마지막에는 그 누구도 주군으로 섬기지 않고 발렌시아 지역

을 다스리다가 죽었다. 사실 엘시드는 우리가 아는 흔한 영웅과는 다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가톨릭의 군주를 때로는 이슬람의 군주를 섬기며 살아갔다. 한 명의 군주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다수의 용병대장이 그러했다. 가톨릭에서도 이슬람에서도 동시에 존경을 받는 거의 유일한 영웅이 바로 비바르 장군이다. 그를 부르는 호칭 '엘시드'는 아랍어이며, 존경의 의미를 담은 '주군'이라는 뜻이다.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듣게 되는 스페인의 도시 이름이다. 이곳에는 스페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인, 성 야고보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12사도 중 한 분이신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서쪽의 세상 끝으로 여겨졌던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스페인이다. 성경은 성인의 전도 여행에 대해 보도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그의 열정에 대해서는 초세기부터 교회가 증언하고 있다. 스페인에서의 복음 전파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인은 결국 헤로데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후 성인의 유해가 묻힌 무덤의 행방은 알 길이 없게 되었는데, 수 세기

가 지난 후 스페인의 한 동굴에서 별의 인도로 그분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당시 국왕이었던 알폰소는 150여 년에 걸쳐 성인의 유해를 모시는 대성당을 건설했다. 이곳의 지명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별빛 들판의 성 야고보)'인 이유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중앙 제대 아래에는 성인의 유해가 은빛 유해함에 모셔져 있다. 이후 844년, 이슬람과의 치열한 전쟁 중 벌어진 클라비호 전투에서 성인께서 스페인의 군대 앞쪽에 나타나 적군을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증언되면서, 성인에 대한 신심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스페인의 서쪽 끝 대서양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인의 무덤을 향해 속죄와 희생의 증거를 온몸으로 던고 걸어가는 까미노가 시작되었다. 그곳으로 향하는 많은 까미노 길 중 우리나라에서는 '까미노 프랑세스(프랑스 길)'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세계 3대 성지 중 하나인 까미노 길을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트래킹처럼 해치우고 맛집과 무용담으로 가득한 책을 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나, 성인의 도움과 나의 의지, 자연과 인간을 묵상하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을 도구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



▲ 데레사와 요한의 만남(아빌라 강생 수도원 박물관)



▲ 몬세라트 수도원



▲ 바르셀로나 성가정 성당



▲ 이나시오 로올라 생가(화심의 소성당)



▲ 이슬람 모스크를 코르도바 주교좌성당으로

이 바로 까미노임을 잊지 않아야겠다.

콜롬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에 대한 이야기는 세비아에서 들을 수 있다. 중세기까지도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던 스페인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 된 것은 아메리카의 발견이 시작이었다. 같은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도 스페인보다 더 작은 나라였던 포르투갈이 아프리카를 돌아 동쪽으로 향하는 무역길을 개척하면서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면, 거의 동시대에 스페인은 대서양을 지나 서쪽 해양길을 만들어 나갔다. 수천 년 동안 지구는 평평한 대지라고 생각했던 고정 관념을 깬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이미 기원 전 4세기경에 아리스타리코스는 지구가 둥글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학설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후 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천동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중세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지동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

후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서조차 지동설에 대한 연구는 끊이지 않았다. 콜롬버스는 지동설에 영향을 받았고, 우여곡절을 거쳐 당시 스페인의 여왕이었던 이사벨라의 후원으로 항해를 떠났다. 그리고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게 되고(그는 그곳이 인도의 동쪽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인들은 새로운 민족과 인종, 그리고 종교를 만나게 되었다. 물론 스페인이 무력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영화 「미션」을 추천한다. 영화는 아름다운 오보에의 선율과 함께, 복음전파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의 개념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아빌라는 스페인의 중서부에 있는 도시이며, 해발 1,100m가 넘는 고도에 위치해 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멀리서도 천혜의 요새임이 한눈에 보인다. 그러나 아빌라는 그 도시 자체의 위용보다도, 16세기의 위대한 두 성인인 대 테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야기로 더욱 알려져 있다. 루터의 종교분열이 시작될 때 여섯 살이었던 대 테레사 성녀는, 독일의 루터와는 다르게 ‘교회 내에서의 개혁’을 이루었다. 인간이 지닌 나약함이라는 한계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가지는 위대한 잠재력, 이 양극단을 정확히 인지하고 몸으로 체현하신 분이시다. 완벽한 삶을 계획하는 인간이지만 또한 인간이 가진 나약성을 받아들여 겸손하게 완덕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셨다. 카르멜 수도회는 십자군 시대에 이스라엘의 카르멜 산에서 엘리야와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좇아 시작되었으나, 그 엄격함이 시대를 지나며 흔들리고 완화되고 있었다. 그 혼돈의 시기에, 더구나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몸으로 성녀 대 테레사는 카르멜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영성의 새로운 획을 그은 위대한 스승으로 자리매김

한다. 흐트러진 남자 카르멜회에 회의를 느끼던 젊은 사제 십자가의 요한은 대 테레사를 만나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을 깨닫고,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비영성의 대가로 거듭나게 된다. 이 두 분이 아빌라 언덕 아래 위치한 카르멜 수도원의 고해소 안에서 철장을 사이에 두고 나눈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수동적이라는 단어는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이 두 분에게 수동적이라는 말은 매우 적극적인 내어맡김과 같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정화의 단계를 넘어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을 직접 정화시켜 주시는 완전한 수동의 삶, 그것을 지향하는 그 신비로움을 이제 우리도 느껴 보아야 한다.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는 현대사회에는, 두 성인께서 비움과 나약함을 통해 완전한 하느님과의 합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 완덕의 길이 더더욱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예수회의 창설자, 적대자들에게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불리는 그에 대한 이야기도 스페인에서 들을 수 있다. 로올라의 이나시오로 불리는 예수회 창설자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하다. 귀족의 자제로 태어나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그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되는데,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 읽었던 성인전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11개월에 걸친 순례의 시간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후 서른이 넘는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 십대 초중반의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한다. 당시 최고의 학교인 파리 대학에 입학하게 된 그는 그곳에서 만난 6명의 동료들과 자신이 체험한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영성수련을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예루살렘 순례를 목표로 작은 모임을 시작한다. 이 모임이 예수회의 모태가 된다. 이슬람 세력의 변창으로 예루살렘을 향

한 순례는 좌절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다시 한번 이 모임의 새로운 성격이 형성된다. 예수의 형제들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봉헌하기로 한 이들은 후일 바오로 3세 교황으로부터 정식 수도회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수도회의 기본정신인 “가난, 정결, 순명”의 3덕에 “교회의 수장을 위한 충성”이라는 4번째 원칙을 회헌에 명시한 특별함으로 인해 예수회는 가톨릭 교회의 적대자들로부터 지금껏 모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수회는 그간의 수도회가 중시하던 수도복과 기도생활보다도 내면적인 변화를 더 중요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도회로서 교회의 변화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반적인 신자들의 상식보다도 훨씬 커다란 영향력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야 첫 번째 교황을 배출한 것이 아이러니할 정도이다.

스페인인은 드넓은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다수 존재한다. 그만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집시들의 애환이 담긴 플라멩고와 이제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투우 이야기부터 몬세라트 수도원의 검은 성모님 이야기, 스페인 성모신심의 중심지인 ‘기둥 위의 성모’ 이야기,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 피카소의 게르니카까지 열거하자면 끝이 나지 않을 정도이다. 이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날 여러 축제의 형태로 기억된다.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소원으로 ‘(기쁨을 나누는) 축제일이 아닌 날에 형을 집행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러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스페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하루도 기쁨의 축제가 아닌 날이 없다는 말을 비틀어본다. “나는 단 하루라도 온 종일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느님 안에서 기쁨에만 넘쳐 살았던 날이 있는가?” 

인터뷰 요셉의원

인터뷰 : 신완식 루카 의무원장 대담·정리: 최태교 안드레아 편집위원

❖ 요셉의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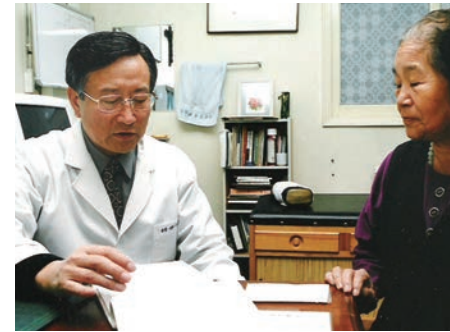
요셉의원은 가난하고 병들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의료기관입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활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이념 아래 1987년 8월 29일 서울의 주요 빈민촌 가운데 하나였던 관악구 신림1동에서 개원하였습니다.

요셉병원의 개원은 종합병원 내과 과장으로 있던 선우경식 요셉 원장이 1980년대 초 신림동

달동네의 무료 주말진료소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중 주말진료의 한계를 절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상설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당시 뜻을 같이 하는 지원단체,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병원을 개원하고 초대 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진료비를 한 푼도 낼 수 없는 이들이 다른 어떤 환자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임을 발견한 것도 이 진료실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세월 진료실을 떠날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이 환자들은 내게는 선물이나 다름없다. 의사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는 무능력한 환자야말로 진정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가?”
(2003년 5월 『착한 이웃』, 선우경식 요셉 원장의 기고문에서)

선우경식 원장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삶 전체에 연민과 책임을 느꼈습니다. 배를 굶는 환자에게 ‘약보다는 밥이 먼저’라는 생각에서 직접 병원에서 밥을 지어 나누었죠. 이와



▲ 선우경식 원장 진료



▲ 신완식 의무원장 진료



▲ 외국수녀 봉사

같은 선우 원장의 뜻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식사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종하기 2년 전 가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준비된 사람’에게 병원을 물려주고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난한 이들의 자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원은 1997년 5월 1일 도시빈민의 증가에 따라 영등포역 부근 쪽방촌 현재의 건물로 이전해 2017년 8월 29일자로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개원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후원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원 30주년을 맞아 요셉의원 30년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 30년』을 발간하고 9월 23일 서울 대방동 성당에서 개원 30주년 개원 감사미사 및 장기 후원자, 봉사자 300여 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하였습니다.

❖ 요셉의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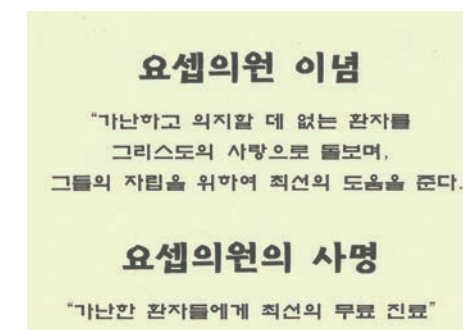
요셉의원의 사명은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입니다.

병원 안에 내과, 외과,

신경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등 20여 개 진료과목을 두고 있다. 또 환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정신적 치유를 위한 음악치료, 인문학 강의, 영화포럼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개설하는 한편, 배고픈 이들에게 무료 급식 제공, 이발, 목욕, 옷 나눔, 컴퓨터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의 나눔으로 소외된 이들을 도우며 이들의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원은 연인원 90여 명의 의료진 봉사를 포함해 600여 명의 각 부문 봉사자와 약 12,000여 명의 후원자들 도움에 힘입어 하루 평균 100여 명씩 진료(연평균 약 24,000명)하여 현재까지 약 7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2013년 1월에는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말라본 시에 ‘필리핀 요셉의원’을 세워 ‘가난한 환자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 제공이라는 요셉의원의 사명을 국외에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무료환자진료와 더불어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초·중등·대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가난한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요셉의원의 이념과 사명

▼ 요셉의원





▲ 교리공부



▲ 음악치료



▲ 음식나눔

❖ 요셉의원을 통해 맺은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요셉의원에 와서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요셉의원에 오시는 수많은 봉사자 및 후원자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며 더불어 스킨십을 갖는다는 것이 마음과는

달리 실제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 원장님께서 봉사를 계속 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도 늘 깨어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소명을 받은 것은 저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마땅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원에 계신 신부님과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와 관련해 평신도와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소를 띠며 즐겁게 응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volunteer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이웃을 위해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음에 놀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하면 함께 행복해 집니다. 내가 불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보다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됩니다.

자원봉사는 자선활동과는 다릅니다. 자선활동은 제공자와 수혜자가 수직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제공자와 수혜자들이 서로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와서 해

보니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나눔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삶이 즐거워요.”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남은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다면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봉사하겠다는 정신은 물론이지만 어느 정도의 봉사할 수 있는 체력과 시간적 여유, 약간의 경제적 여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모두 함께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 조건들은 모두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간에 변수가 생기게 되면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봉사가 어떻게 비쳐질까 하는 의식, 자기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시선도 극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눔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

다. 크든 작든, 나눔은 언제나 기쁘고 풍요로운 일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눔은 혼자 하면 어렵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기적과 같이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요셉의원 활동에 평신도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봉사활동과 후원활동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진료봉사와 일반봉사로 구분되며 진료봉사는 국가공인면허증 소지자만 가능하고, 일반봉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남녀가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신청은 요셉의원 홈페이지(<http://josephclinic.org>)에서 봉사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자원봉사가 확정되면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화 문의는 070-4688-3402로 평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가능합니다.

내용별 봉사

구분		봉사 자격
진료 봉사	진료봉사	외래 진료: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피부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통증의학과, 한의과, 치과(보철, 구강외과, 보존, 치주)
	진료지원봉사	간호, 약제, 임상병리, 영상의학, 치위생, 치기공, 물리치료, 일상상담, 대체의학(카이로프랙틱, 지압 등)의 지원
	진료업무 지원	간호, 약제, 치과, 임상병리, 환자접수(차트 관리) 업무보조
일반 봉사	행정업무 지원	원무, 후원회, 도서관, 사회사업, 자원봉사지원 등의 사무보조
	전문봉사 지원	알코올 중독 예방 상담, 법률 상담, 사회복지 상담, 이·미용 봉사, 시설관리(전기, 건물 보수)
	재활프로그램 지원	음악·미술 치료, 영화포럼, 인문학 강의
	원내 지원	청소, 세탁, 주방, 현관, 급식, 창고관리
	원외 지원	운전(기부물품 수령, 환자 이송, 부식 구매), 대상자 기관방문 동행, 행사 지원, 무연고자 장례지원



▲ 이·미용 봉사



▲ 김장 담그기

후원 활동은 요셉의원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또는 수시후원을 신청하시고 전화문의는 평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070-4688-3416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셉의원 후원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북)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부설 요셉의원 (예금주 표기수 한계로 초록색부분만 확인됨)
우리은행	172-066521-01-101	
국민은행	364-01-0000-976	
외환은행	111-13-04699-8	
KEB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우체국	010108-01-011536	

필리핀 요셉의원 후원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국민은행	364301-04-150303	필리핀요셉의원 후원회
전화문의	070-4688-3412	

❖ 향후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의원은 언제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재개발지역에 묶여 있으며, 코로나 시기에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 장소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기간에 환자들을 돌볼 장소도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필리핀 요셉의원을 비롯한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주보성인과 나 제르트루다



구자임 제르트루다 / 서울성모병원 봉사자(반포성당)

세 가지 꿈으로

제가 천주교인이 된 것은 몇 차례의 반복되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는 절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남편 이름을 절에 올렸기 때문에 제 이름도 올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냉큼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는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 핑계를 댔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지나자 또 다시 절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무교인 저로서는 당연히 시댁의 종교를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왜인지 그리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꿈입니다. 가을 빛이 부드러운 오후였습니다. 차 한 대가 다닐 만한 농로에 두 사람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누런 잡초가 누워 있는 논둑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뭐 이상할까요? 저만치 뒤에서 보고 있던 저에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걷는 뒷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부부도 오누이도 연인 사이도 부녀 사이도 요즘 얘기하는 남사친과 여사친 사이도 아닌데, 이 세상엔 존재할 수 없는 땔레야 땔 수 없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저런 관계는 땔까? 궁금하

여 날아가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33세 귀밑길이의 반곱슬 단발머리 예수님, 여자는 26세의 저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예수 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저의 동반자가 예수님이라니……

그 후로 이젠 시댁의 종교를 따라 절에 가야겠다. 종교가 없으니 이런 꿈도 꾸는구나 싶었습니다. 일하라 살림하라 1인 몇 억인지도 모를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2) 그러던 어느 날,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꿈에서 제가 절을 찾아갔습니다. 시냇물 졸졸 흐르는 커다란 나무 그늘 우거진 숲길을 따라 콧노래도 부르며 폭신평신했던 보드라운 흙길을 걸어 올라가니 웅장한 절이 저를 반깁니다. 기도를 하려고 격자무늬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앙에 제사야 할 부처님은 어디 가고 보이질 않습니다. 누군가 이곳은 성당이라 합니다. 그냥 놀라 잠에서 깬습니다.

3) 젊은 시절 시부모님의 종교를 여쭙보니 시어머님은 개신교회에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모님은 결혼 후 불교로 개종하시고, 많이 아프신 적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인지 이번엔 제가 꿈속에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정갈하게 잘 꾸며 놓은 갤러리 같은 2층 유리

건물의 교회, 잔디광장에는 구유에 누워 방글거리며 웃고 있는 아기 예수도 있었습니다. 깨끗한 2층 계단을 올라 투명한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당이었습니다. 또다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주교와 인연을 맺다

그럭저럭 시간이 흐르고 큰아이가 태어나고 시댁에서는 손주까지 데리고 절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결혼 후에 곧 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림 좀 더 생각해 보자 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와 함께 살고 있던 막내 시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를 받는다고 하여 뭔지도 모르고 목주 반지를 선물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시댁과의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남편과 세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큰시누이와 조카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오빠 가족 5명도 모두 세례를 받고 충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집안이 성숙한 천주교인으로 거듭나길 기도할 뿐입니다.

작년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 외사촌이신 수녀님으로부터 대세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인지 수녀님이 저희 집에 오신 기억도, 대세를 주신 기억도 없습니다. 수녀님은 어린 시절 저희 집에 방학 때마다 오시면 외가댁에서 참 잘해 주셨다고 하시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하느님과 약속하셨답니다. 외숙 앞에서 당신들이 남겨 두고 가시는 이 자녀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며 은혜를 갚겠다고……

제가 성당을 다니게 된 것이 저희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외사촌인 수녀님 덕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소망이 제가 세 번이나 꿈을 꾸게 한 것 같습니다.

벨기에 니벨레스 제르트루다 성녀를 주보 성인으로

교리 시간에 듣고 보고 배우며 천주교와의 뜻깊은 첫 인연은 시작되었고 성녀 제르트루다 주보 성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세식을 하려면 주보 성인을 정하라 해서 제 생일과 같은 날짜를 찾아 보니 3월 17일이 축일이신 제르트루다가 있어서 망설임 없이 택하게 되었습니다. 드문 이름이라 사람들 관심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성녀 제르트루다(Gertrudis) 혹은 젤투르다는 란덴(Landen)에서 626년 3월 17일 복자 페핀과 성녀 이다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경건한 생활을 본받았으므로 스스로 수도생활에 헌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39년 복자 페핀이 사망하자 성녀 이다는 니벨레스에 수도원을 세우고 딸과 함께 입회하였는데, 딸인 성녀 제르트루다가 수녀원장이 되었습니다. 656년에 원장직을 사임한 그녀는 성서 연구와 고행하는데 몰두하였습니다. 벨기에 니벨레스에서 활동하신 제르트루다 성녀님은 환시의 은혜를 받았고 오로지 교회와 병원에 봉사하며 성서 연구와 고행에 몰두하였습니다. 여행자와 정원사의 수호성인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시부모님 간병과 코로나로 병원 봉사를 쉬고 있지만, 수호성인의 삶을 본받아 앞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여행자의 수호성인이신 제르트루다 성녀님과 함께 성지순례도 가고 싶습니다. 



▲ 제르트루다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성전에서 피어난 예술 원주교구 대화성당

한진섭 요셉 / 조각가



▶ 사진1 - 십자가상(대리석 143×12×193cm, 1997)

강원도 평창의 대화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한다. 주인공 허생원이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풍경을 묘사한 바로 그 대화에 세워진 성당이 대화성당이다. 대화성당은 작지만 아름답고 소박한 예술성당이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 당시 대화성당의 황인찬 주임신부는 원주교구 주교님으로부터 독일 유학을 허락받고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신부님만은 꼭 성전을 지어주고 떠나세요.”라며 부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교우들의 간절한 당부 앞에서 “유학을 가야 하나? 성전을 지어야 하나?”라는 문제로 성체 앞에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유학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새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내렸다.

나와 대화성당과의 인연은 중고등학교 동창인 류충희 신부님과 함께 떠난 유럽 성지순례에서 황인찬 신부님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인연

으로 종로성당에서 황 신부님의 성전건립 기금마련 강론을 듣게 된 것이다. 황인찬 신부님은 모금 강론 중 시골성당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한 후 감사의 표현으로 영화 주제곡 「태양은 가득히」를 색소폰으로 연주하였는데 구슬픈 음악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신자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신자들은 기꺼이 주머니를 열어 기금을 봉헌했다.

1997년 4월 20일 기공식과 더불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모금 강론은 그렇게 첫걸음을 시작하여 전국 12곳의 성당을 다니며 필요한 건축경비가 마련되었다. 나 역시 종로성당에서 눈시울을 적시며 지갑을 열었고 내가 가진 조각가로서의 재능을 봉헌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십자가상(사진1), 제대, 감실, 독서대(사진2), 성수대, 14처, 성모자상, 지붕 위의 십자가(사진3)”



▲ 사진2 - 제대(화강석, 180×90×88cm, 1997)
감실(화강석, 43×38×125cm, 1997)
독서대(화강석, 49×38×130cm, 1997)

이들 성미술이 내가 대화성당을 위해 봉헌하고자 마음먹은 성미술이었고 기적처럼 다 실행했다. 나로서는 처음으로 성당의 성미술을 제작하



▲ 사진3 - 지붕 위의 십자가(브론즈, 126×45×180cm, 1997)

는 계기였고, 이후 하느님의 은총으로 많은 성당들의 성미술을 제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는 또한 나의 안성 작업장 근처에 사는 도예가이자 친구인 변승훈 작가를 끌어들여 대화성당 내부 전체를 분청 모자이크 벽화(사진4)로 제작하도록 청했다. 이로 인하여 변승훈은 도자기 그릇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던 분청사기 기법을 건축물 벽장식의 일부로 확장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 성당 내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소박하면서도 현대적인 그의 작품은 성당 안의 모든 성미술들을 모두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변승훈은 대화성당 작업을 하면서 늦둥이 쌍둥이 아들을 낳는 축복도 받았으며 이 작업을 계기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이후에도 성미술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

대화성당의 성미술 제작에 참여했던 작가들은 가난한 시골에서 성당을 짓기 위해 유학까지 포기한 신부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작품비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좋은 성당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작에 임했다. 신부님은 비록 미술에 대한 조예는 깊지 않았으나 성미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작가들이 마음껏 작업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었고, 전례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작품 형태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작가들에게 이 같은 분위기는 대화성당에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십자가상(사진1)

대화성당 십자가상은 십자가 전체가 검정색 대리석 통돌이다. 성미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도 십자가상은 대부분 나무나 청동으로 제작하며 십자가상 전체를 돌로 제작한 경우는 흔치 않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상은 제대 뒤 벽의 중앙에 위치한다. 하지만 대화성당의 십자가상은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에 설치했다. 이렇게 중앙을 살짝 벗어나 배치하니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유지하면서도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대화성당의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닌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준 구세주의 희망적인 모습이다.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초자연적 모습을 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신자들은 평화를 느낀다는 말을 많이 하며 좋아하였다. 나는 대화성당의 십자가상을 제작하면서 고통스런 예수님보다는 죽음을 이겨내고, 세상 시름을 잊으신 평화로운 예수님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제대, 감실, 독서대(사진2)

성당 제단에 자리 잡고 있는 제대와 감실 그리고 독서대는 같은 재질의 임페이얼 레드라는 붉은 색 화강암으로 제작하였다. 화강석은 대리석에 비하여 강도가 높아서 조각을 하기에 무척 힘이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임페리얼 레드라는 색상이 아름답고 수천 년 동안 보존이 가능하여 화강성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는 이 돌을 가

지고 있었기에 제작이 가능했다.

이 세 작품은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부드러운 곡선과 볼륨으로 제작하여 공간 전체에 통일감과 편안함 그리고 안정감을 주어 미사를 드릴 때 신자들의 시선을 중앙으로 모으는 역할도 하도록 하였다.

지붕 위의 십자가(사진3)

4명의 복음서 저자가 서로 어우러져서 십자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독창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당시까지 성당의 종탑 십자가를 독특한 작품으로 제작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는데, 기존 성당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 많은 고민 끝에 만든 작품이다.

종탑이 지탱해야 하는 엄청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청동으로 제작하였으며 무게는 600kg 정도이다. 당시만 해도 성당의 십자가는 기성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대화성당의 십자가는 이 성당에 어울리는 형태로 디자인을 한 세계 유일의 십자가이다. 聖



▲ 사진4 - 변승훈, 대화성당 뒷벽, 「골고타의 십자가」, 분청사기 모자이크, 1997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슬슬한 밤의 다정한 안부

황인수 지음 / 레벤북스 / 148×200 / 140쪽 / 12,000원

코로나 19의 창궐로 마음을 담은 정겨운 안부를 주고받기가 쉽지 않은 이즈음, 레벤북스는 세상이 보다 더 따뜻하고 훈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했다. 책 구성은 사계절로 구분하였다. 봄이라면 유아기나 아동기와 같은 활기, 생동감, 생명력, 역동 등 설레고 분주한 느낌과 단어들이 생각난다. 독자들은 부두에 묶여 있지 않고 바다, 그것도 아주 넓은 바다로 떠나고 나아가려는 생명력이 넘치는 배를 만날 수 있다. 여름을 떠올리면 청년기처럼 넘치는 에너지, 바다, 파도, 열정, 이글거리는 태양이 생각난다. 배를 타고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항해하는 것은 멋지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가을은 중·장년기에 해당하며 사람에게 센터멘털한 감정에다 눈물까지 선사한다. 겨울은 노년기에 비유되며 사람을 원숙하게 도와주는 계절이다. 저자는 비어 있는 방처럼 살라고 부탁한다. 누가 머물려고 하면 푸근한 침묵으로 그 방을 내어 주기도 하고, 또 떠나겠다고 하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방. 비어 있는 방처럼 살면 좀 더 원숙한 사람이 될 것 같다.



후회에서 벗어나기

캐스린 J. 헤르메스 지음 / 배기선 옮김 / 바오로딸 / 148×200 / 256쪽 / 14,000원

미국 성바오로딸수도회 캐스린 J. 헤르메스 수녀가 마음 작업(Heart Work)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대1 상담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쓴 영성 서적이다. 많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반복하며 굳어진 잘못된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으로 고통을 받으며 습관대로 행동한 뒤 후회한다. 이 책은 자신이 품고 있는 후회들과 이것이 쌓인 결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직면하도록 돕는다. 이 책의 장점은 고통스러운 후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와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후회 목록을 작성하고 안내에 따라 기도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 등이다. 필자는 이 과정을 거치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



저자씨에게 하늘나라를 묻다

전원 지음 / 생활성서사 / 140×200 / 192쪽 / 13,000원

이 책은 단순한 성경의 비유 공부라 아니다. 비유의 의미를 오늘 우리 삶에서 묻는다. 빵을 부풀리는 작은 누룩, 혼인 잔치를 앞 둔 신랑과 신부 등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모든 것, 당시 사람들이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삶을, 세상을 움직였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려준다. 더불어 비유 안에 담긴 참된 진리의 조명으로 우리가 항상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감싸준다. 결국 이 책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매순간이 항상 하늘나라의 신비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도록 이끌어 주며, 일상의 아주 작은 것에서도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

윤주현 지음 / 가톨릭출판사 / 127×188 / 248쪽 / 15,000원

우리는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성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영성이란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니 말이다. 영성이 아직 어렵기만 한 사람들을 위해 펴낸 이 책은 세례를 통해 영적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고, 각자의 일상에서 고유한 영성을 완성하도록 이끌어 준다. 영성 신학에 조예가 깊은 저자는 ‘영성’이라는 귀중한 보화를 현 시대의 신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저자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비유와 에피소드를 따라 읽다 보면 영성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영성에 관심이 있었지만 두꺼운 학술 도서에는 선뜻 다가서기 어려웠다면, 이 책을 통해 영성 신학에 입문해 보길 바란다.



아우톨리쿠스에게(그리스도교 신앙 원전 08)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루스 지음 / 장재명 역주 / 분도출판사 / 136×196 / 208쪽 / 20,000원

이 책은 아우톨리쿠스라는 수신인에게 헌정된 것이지만, 그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어쩌면 이 인물은 일반적으로 이교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종교와 신앙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이교인들의 대변자일 수도 있다. 세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을 부인하는 이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당시 교회의 공식적인 답변으로도 볼 수 있다. 제1권에는 짧은 서언과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다. 이어서 테오필루스는 ‘그대의 하느님을 나에게 보여 달라’는 아우톨리쿠스의 요청에 대하여, 하느님은 존재하시며 그분은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이심을 증명해 보이려 한다. 제2권에서 테오필루스는 아우톨리쿠스가 믿고 따르는 종교적 실행이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을 더욱 상세히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제3권에서도 테오필루스는 그리스도교 교리의 진리와 그리스도교가 유익한 종교라는 사실을 설득하려고 애쓰며, 이교 작가들의 저술과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의 오래됨을 입증하려고 한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평협과 함께하는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성황리에 마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국장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가톨릭굿뉴스가 공동 주최한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국 1,181개 본당에서 참여했으며, 총 참여인원은 14,753명이다. 한국평협은 코로나 19로 인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읽고 쓰고 새기며 흠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응원의 취지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이벤트에서 총 38개 본당이 수상하게 되었다. 전체 1위는 부산교구 이기대성당(상금 200만 원), 2위는 의정부교구 신원동성당(상금 150만 원), 3위는 청주교구 모충동성당(상금 100만 원)이 차지했다. 각 교구 1위 본당(총 16개 본당)에도 특별상이 수여되며, 각 교구평협(평단협) 회장이 본당 신자 수 대비 참여율을 고려해 선정한 특별상도 총 16개 본당에 주어졌다. 신자 수가 적지만 열심히 참여한 도서산간 지역 본당들을 위한 특별상도 마련됐다. 인천교구 백령도성당, 마산교구 생림선교성당, 대구대교구 울곡성당이 수상하게 되었다. 모든 특별상 상금은 각 50만 원. 40일간 복음 쓰기에 열심히 참여한 개인 20명에게는 염수정 추기경님 목주가 선물로 전달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상식은 각 교구 차원으로 진행했다.

한국평협 손병선 회장은 “예수성심성월을 맞으면서 복음 말씀에 맛 들이며 포스트 코로나로 힘들어진 본당 공동체에 활력소를 주고, 교회 내 위기를 공동체성 회복의 기회로 삼고자 시작한 40일 간의 이벤트였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뜨거운 호응 속에 이벤트가 마무리됐다. 모든 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에 많은 참여 속에 이룬 공동체의 새로운 동력이 복음화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 많은 신자가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참여하며 본당 공동체의 일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40세 미만 신자가 30% 가까이 참여할 만큼 젊은 층의 참여가 돋보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 신자들이 모인 한 본당에서는 신자 절반 이상이 복음 쓰기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이벤트로 마무리됐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20년 서울평협 회원연수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지난 7월 18일, 코로나 19로 인해 수차례 연기해오던 회원연수를 크게 축소된 규모로 개최했다.

성 앙베르 센터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서 평신도사도직연구소 이창훈 알폰소 소장은 <교회와 사회 속의 평신도 사도직>을 주제로 강의하며 “코로나 시대의 문 제점은 교회 안에서 가시적 친교가 끊어지는 것”이라

고 지적하고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사도직 표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평신도의 고유한 사도직은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곳이 되도록 개선하고 완성하는데 있다면서, 사도직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 사회생활에 대한 실천원리로서 사회교리를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 권영빈 가브리엘 홍보소통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코로나 장기화 속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본당 중심 사목을 넘어 사이버 사목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디지털 세대를 위한 사이버 선교 방식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 예로 사이버 고해소, 페이지를 이용한 봉헌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서울평협은 하반기 사업으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회원 연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9월 순교자 성월에는 회원 하루 피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세미나를 개최한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조성풍 신부는 “어려운 시기일 수록 하느님만이 우리의 힘이자 희망임을 깨닫는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의 하느님 체험을 간직하며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손병선 회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코로나 19가 창궐하는 현 상황에서, 미디어 플랫폼 구축이 평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며, 기존 매년 진행해오던 평신도 아카데미 ‘공의회과정’을 가톨릭평화방송과 함께 방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등 향후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업 추진에 힘을 것을 시사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대전평단협 지구회장 간담회 개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맹동술 시몬)는 6월 13일 대철회관에서 대전교구 13개 지구의 지



구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사목회장·단체장 연수회’ 개최 건, 지구회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또한 코로나 19로 각 본당이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김병상 몬시뇰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4월 25일 김병상 필립보 몬시뇰(원로사목)이 향년 만 88세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선종하였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황규철 베드로)

와 인천교구 연령회연합회(회장 박종석 클레멘스) 주관으로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 분향소를 마련하여 미사와 연도를 봉헌하고,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였다. 장례미사는 27일 답동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미사 강론에서 정 주교는 “하느님께서 우리 교구의 큰 어른이신 신부님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주시기를 청한다. 몬시뇰께서는 51년간 사제 생활을 하시며 하느님이 주신 재능과 언변, 지혜 등 모든 것을 바쳐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했고, 하느님이 원하셨던 일을 하셨다. 몬시뇰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가슴에 담아 우리는 이 시대의 징표를 읽고 신앙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 후 이어진 추모 예식에서 김일회 빈첸시오 신부(인천교구 사무처장)가故 김병상 몬시뇰의 약력을 소개하였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애도 글을 대독하였다. 또한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前 전주교구장)가 조사를 낭독하였다. 정부는 이를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모란장(2등급)을 추서하였으며,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분향소를 찾아 훈장을 전달하고 유족을 위로하였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코로나 19 신자의식 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용무 미카엘)와 교구 선교사목국, 교구 사

목연구소는 공동주관으로 의정부교구 신자들 대상으로 '코로나 19 신자의식조사'를 하고, 지난 6월 9일 의정부사적지성당에서 조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6,000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응답한 이번 조사를 통하여 코로나 사태가 신자들에게 준 영향과 평협의 과제를 파악함과 함께, 해외교회 사례를 연구하고 교구 사목방향을 점검했다.

●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 및 대의원 연수



6월 20일 주교좌의정부성당에서 의정부교구 평협 정기총회와 대의원 연수를 개최했다. 코로나 여파로 늦게 열린 총회를 통해 출범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들을 점검했다.

대의원 연수는 지난 6월 9일에 발표된 신자의식조사 결과를 나누며 본당과 단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교구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가 주례하는 미사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코로나 19 극복 성금 모금활동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재석 사도요한, 담당 권지호 프란치스코 신부, 이하 부산평협)는 코로나 19 사태 발생 초기에 다량의 소독액을 급급하여 교구 내 성지 및 성지성당 네 곳에 비치하고 사순절에 순례를 오는 신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탰다.

2차로 교구평협 상임위 임원 자체적으로 코로나 조기퇴치를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모금하여, 지난 4월 14일 교구장 주교님께 전달하였다.



부활절이 왔지만, 여느 해 부활절처럼 기쁨만이 가득한 부활절을 즐기기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상처로 아픈 이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일상의 평화를 하루빨리 앞당기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 시복 · 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부산평협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금까지 5년간 매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마다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삼랑진역 ~ 김범우 순교자성지 6km)'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교구민 전체가 참여하는 도보성지순례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교구 평협에서는 폭염과 혹한에서도 도보순례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열정과 기도로 빠른 시복 · 시성을 위한 교구민들의 갈망을 평협 임원들이라도 계속 이어가자고 발의하여 5월 말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교구평협 임원과 가족들이 도보순례를 이어가고 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평협 상임위원회의 및 임명장 수여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백균철 바오로, 담당 최봉원 야고보 총대리 신부)는 6월 12일 교구청 강당에서 제26대 평협 상임위원회 및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35명의 신임 평협 상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상임위원 소개 및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이루어졌다.

이어 백균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비상사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중단되었던 미사는 재개됐지만, 아직 많은 신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구평협이 변화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 평신도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총회를 마치고 한국평협 정기총회 참석 보고 등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차기 일정에 한국평협 연수회 및 10월에 개최하는 '공동합의성' 관련 심포지엄 계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담당사제 최봉원 신부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현

대 교회가 걸어야 할 길로서 '공동합의성'을 제시하였다. 공동합의성을 실현하기 위해 교구평협에서 평신도의 역할에 충실하고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사목적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평신도 스스로 교구 차원의 대응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서로 경청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는 교구평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단체별 현황보고도 함께 진행하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및 여성위원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리카르도)는 지난 5월 23일 교구청 성당에서 평협과 여성위원회 신·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를 봉헌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는 정기총회 후 2월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19로 연기되어 개최한 것이다.

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는 임기를 마친 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신임 임원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임기 동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내에 청년부를 신설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씀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25기 임원 워크숍 개최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병성 세례자 요한)는 6월 22일 전주교구청 4층 강당에서 김희태 사도 요한 총대리 신부님을 모시고 평단협 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평단협 활성화를 위한 논의 및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했던 '주교님과 함께하는 사목회장·평단협 제단체장 연수'를 오는 9월 5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매뉴얼 작성을 위해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과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출입자 확인 시스템 ②방역문제 ③코로나 대비 매뉴얼 개발 ④영적 부족함을 채울 있는 대책 ⑤코로나 충격 이후 인식 전환 등이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사제의 날, 주교님을 비롯한 교구 신부님들과의 간담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고용삼 베네딕토, 담당 황태중 요셉 신부, 이하 제주평협)는 지난 4월 9일 사제의 날을 맞아 코로나 19로 성유축성미사에는 평신도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교구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두 주교님과 교구 사제, 수도자



들을 모시고 다소나마 그 노고에 보답하는 뜻을 담은 간담을 겸해 오찬을 제공했다.

평협 임원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는 두 분 주교님과 교구청 소속 신부님, 수녀님, 원로 신부님, 골롬반회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엠마오 연수원에 와 있는 신부님들까지 60여 분을 모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평협 2/4분기 상임위원회 개최



제주평협에서는 지난 5월 7일 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2/4분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들을 보고하고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 교구 성모의 밤 행사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단위 단체장과의 간담회 계획,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 회원 대상의 워크숍 일정 등도 협의를 하고,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는 『제주평협』 제18호 발간 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한국평협이 추진하고 있는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와 가정선교체험 공모전 참여하기, 그리고 가톨릭대상 추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계획들을 구체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2020년 교구 성모의 밤 행사 개최



제주평협이 주관하는 제주교구 성모의 밤 행사가 5월 21일 저녁 8시부터 성 이시돌 삼위일체 야외 성당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미사가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행사 자체를 개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예년에 비해 거리와 간격을 배로 늘려 1,500석의 자리를 배치하였는데, 오히려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교우들이 자리를 메웠다. 금년에는 '근심하는 이의 위안이신 성모 마리아'를 주제로 1부 행사에서 화관식과 꽃 봉헌에 이어 미사를 한 후, 2부 행사로 묵주기도가 이어졌다. 예년과는 달리 제자리에서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의 밤 행사를 의미 있게 마칠 수 있었다.

● 교구 단위 단체장과의 연석회의 개최



제주평협에서는 교구장이 인준한 32개 단위 단체장들과의 소통과 유대 강화 차원에서 2018년부터 연 1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단체 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금년에도 지난 6월 27일 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담당사제 황태중 신부를 모시고 단체장 23명과 평협 임원 15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서로 간의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한국평협이 추진하고 있는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과 가정선교체험 공모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2020년 상반기 이사회 개최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회장 양지수 미카엘, 담당 김용태 요셉 신부)는 6월 11일, 부산교구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에서 상반기 이사회(전국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교구 선교회 임원과 봉사자 28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새로 선출된 울산선교회 회장의 인사와 점자 전례서 보급사업, 내년도 전국 단위의 행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부산선교회 담당 이요한 신부의 집전으로 봉헌한 파견미사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미사와 활동을 하지 못하는 대구선교회를 비롯한 각 선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도하였다.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제53차 정기총회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제53차 정기총회가 5월 26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코로나 19로 3개월 연기한 뒤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및 이사진, 감사, 회원기관 대표들과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다.

회의는 2019년 운영 전반에 관한 결산 보고 및 2020년 사업 계획 논의, 2년 임기의 회장 선출로 이어졌다.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는 수원교구 성라자로마을 원장 한영기 바오로 신부가, 부회장으로는 작은형제회 산청 성심인애원 통합원장 김재섭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가 선출되었다.

한국평협 Youtube 채널
유튜브에 가톨릭평신도-한국평협 검색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입니다. 가톨릭평화방송에서 방영 중인 '함께하는 평신도 아카데미 교황문헌과정'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평신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Editor's Letter 모바일 기기의 종교적 접근

2020년은 한국 가톨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억되는 연도가 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미사의 중단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한 재개, 7월 말까지 1,700만 명이 넘는 확진자의 발생, 하늘 길의 중단 등 우리가 일상을 통하여 진행하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이 사태를 통하여 평소에 행하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우리에게서는 축복이자 커다란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미사를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 현실의 상황은 아직도 녹록지 않다. 신약은 개발 중이나 진행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찬바람이 부는 시기가 되면 팬데믹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에 대한 목마름을 호소하는 신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소통의 장이 존재한다.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그동안 부정적인 면이 주로 부각되었고 디지털 격차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습은 대면 접촉의 위험성이 높아져 언택트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 등장한 것이 스마트폰이다. 이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비대면 시대의 총아로 재인식이 되었으며 종교도 이러한 기능들을 빠르게 도입하여 신자들에게 유용한 영성적인 내용을 보내주고 있다. 한국 평협에서는 인터넷 굿뉴스와 공동으로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이벤트를 40일간 진행하였다. 관련 내용을 이번 호에 특집 분석 기사와 참가 후기로 나누어 싣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하여 복음 쓰기과 묵상을 기록하는 영성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틈이 날 때마다 어디서나 연결과 입력이 가능하다. 출·퇴근 길 지하철에서도 게임이나 영화보기 대신에 조용히 영성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본당 대항 이벤트이므로 다 같이 참여하여 상호 노력하면서 공동체 연대 의식도 함께 함양하는 효과도 있다. 처음으로 열린 이벤트였지만 전국 1,181본당의 14,753명의 참여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면과는 효과가 다르지만 언택트 방식으로든 충분히 종교와 접하고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이 신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평협이 준비하여 제공하는 유튜브도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홍보 및 소통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단순히 “이 또한 지나가리라!”만을 생각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인식으로 신자들이 원하는 영성을 위한 방안을 스마트 기기와 함께 그리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화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올림

“평신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평신도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내용은 현재 칼럼으로 연재되는 나의 신앙 선조, 주보성인과 나 등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영성체험 등도 좋습니다. 성지순례는 이미 내용이 풍부하여 사양합니다. 독자의 투고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 용지 1.5매 정도입니다. 별도로 본인의 얼굴사진과 본문과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고 연락처와 번호를 남겨주면 됩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할 예정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투고는 clack-hongbo@daum.net으로 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평신도 명예기자 명단(2020년 8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대전평단협	강현인	글라라	vingib@hanmail.net
인천평협	장영철	아우구스티노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의정부평협	김현채	바오로	prwsav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한국협의회	김미녀	리디아	oh-mn@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새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